상담심리학석사학위논문

상담자 발달수준과 자아분화 및 역전이 행동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학과

양경연

2005년 8월

상담자 발달수준과 자아분화 및 역전이 행동과의 관계

Relationships among
Counselor Development Level, Self-Differentiation
and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지도 : 정 남 운 교수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8월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상담학과
양경연

양경연의 상담심리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주심 _____ (인)

위원 _____ (인)

위원 _____ (인)

2005년 8월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목 차

논 문 개 요 ····· 1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2. 이론적 배경····· 6
3. 문제제기 및 연구문제····· 28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9
2. 측정도구····· 31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34

Ⅲ. 결 과····· 35

Ⅳ. 논 의····· 50

참 고 문 헌····· 57
부 록····· 62
영 문 초 록····· 70

표 목 차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0
표 2. 연구 대상의 상담 경력 및 교육 경험 평균과 표준편차····· 31
표 3. 연령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36
표 4. 연령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의 차이분석····· 36
표 5. 결혼상태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 37
표 6. 결혼상태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의 차이분석····· 37
표 7. 미혼 상담자의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과의 차이분석····· 38
표 8. 기혼 상담자의 자녀유무와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과의 차이분석····· 39
표 9. 최종학력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과의 차이분석····· 39
표 10. 자격증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 40
표 11. 자격증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과의 차이분석···· 40
표 12. 상담자 전문적 변인과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및 역전이 행동과의 상관분석····· 42
표 13.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간의 상관분석····· 43
표 14. 상담자 발달수준과 자아분화의 각 하위변인간 상관분석····· 44
표 15. 상담자 발달수준과 역전이 행동의 각 하위변인간 상관분석····· 45
표 16. 자아분화와 역전이 행동의 각 하위변인간 상관분석····· 46
표 17. 상담자 발달수준 하위변인과 긍정적 역전이 행동사이의 회귀분석····· 47
표 18. 상담자 발달수준 하위변인과 부정적 역전이 행동사이의 회귀분석····· 48
표 19. 자아분화수준의 하위변인과 긍정적 역전이 행동사이의 회귀분석····· 48
표 20. 자아분화수준의 하위변인과 부정적 역전이 행동사이의 회귀분석····· 49

그림 목차

그림 1. ·결혼상태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의 차이 그래프····· 38
그림 2. 자격증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의 차이 그래프····· 41
그림 3. 자격증에 따른 역전이 행동의 차이 그래프····· 41

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상담자 발달수준과 자아분화 수준 및 역전이 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상담자의 역전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을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6개월 이상의 상담경력이 있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상담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남·여 상담자 120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 자아분화수준 척도, 역전이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고, 자료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차이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상담자의 연령, 자격수준, 상담경력 및 사례가 많을수록, 기혼일수록 상담자 발달수준이 높았고 자격수준, 상담경력 및 사례수가 많을수록, 부모로부터 독립할수록 역전이 행동을 덜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사례가 많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자 발달수준이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지며, 상담자 발달수준과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역전이 행동도 덜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위변인을 보면, 상담자대화기술이 향상될수록 인지 대 정서, 가족투사과정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례이해나 상담계획 측면이 향상될수록 자아통합 능력, 인지 대 정서 기능, 가족투사과정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 발달수준이 높아질수록 대부분의 역전이 행동은 자제되지만, 인간적·윤리적 태도는 긍정적 역전이 행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대 정서가 분화될수록 긍정적, 부정적 역전이 행동 모두를 잘 통제할 수 있고, 자아통합이 잘 이루어질수록 긍정적 역전이 행동이 통제되는 반면, 가족투사과정, 감정단절이나 가족퇴행이 많을수록 부정적 역전이 행동을 많이 나타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상담 결과가 상담자의 이론적 배경보다는 상담자 개인적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는 상담자는 자기문제에서 벗어나 인간적으로 성숙한 만큼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Cormier, 1988; Skovholt & McCarthy, 1988). 특히 내담자와의 '공감적 애착 → 몰입→ 분리감 느끼기'라는 상담의 순환적 특성(Skovholt, 2001)을 고려한다면, 상담자가 내담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성은 상담성과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것이다. 다시 말해 상담자가 내담자와 관계를 맺어나갈 때 친밀감과 거리두기 사이의 거리조절이 실패함으로써 야기되는 불안은 종종 상담자의 역전이 행동을 낳고 역전이 행동은 상담의 지속과 성과(Friedman & Gelso, 2000)에서 뿐만 아니라 상담자 자신의 심리적 소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구나 서양사회와는 달리 한국사회는 가족 중심적이고 집단주의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인간관계가 이루어져왔고 상담자 또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관계 맥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때문에 상담자가 원가족 역동에서 비롯된 미해결된 문제가 상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Sussman(1995)은 상담자들 중에는 원가족 안에서 돌보는 사람, 중재자, 부모화된 아이로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담자는 타인에게 자기를 맞추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다고 지적하였다. Titleman(1995)은 상담자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욕구는 상담자의 '미분화'의 표현이라고 하면서 가족체제이론으로 상담자 문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상담자 특

성을 가족체제 이론으로 접근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Bowen의 가족체제이론에서는 가족을 '분화되지 않은 자아의 덩어리'로 보고, 개인이 성장하고 발달한다는 의미는 가족의 감정 덩어리로부터 자신을 구별해 내는 과정이며 이를 '분화'라고 한다(Kear & Bowen, 1988). 즉 분화라는 개념은 감정을 지적 체제에 의해서 얼마나 잘 통제하고 지배하는가의 정도를 보며, 가족 구성원 한명의 자아분화 과정이 가족 전체라는 큰 맥락과 상호작용한다고 본다. 가족 내에서 대인간 거리를 유지하려는 가족체제의 상호작용적 역동성은 융합과 분화의 양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융합은 환경과 관계에서의 긴장과 불안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나친 가족과의 밀착, 의존성 등을 의미하며 분화는 자율성과 개별성을 지향하는 것을 지칭한다(김혜숙, 2003). 이와 같은 자아분화는 개인 내적, 대인적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자아 분화가 높은 사람은 개인 내적으로는 감정과 생각, 느낌과 생각 사이에 원활한 교류를 통해 내적 거리조절이 이루어지며 대인관계 측면에서 적절한 친밀함과 거리두기를 통해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반면,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지적 기능과 정서기능이 융합되어 있고 자신과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지각하지 못하여 자신의 일관된 신념에 따르기보다는 타인의 견해에 쉽게 동조하여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구하는 특성을 보인다(Bowen, 1982; 제석봉 1989 재인용).

한편, 최근 들어 대상관계 연구자들에 의해 상담에서의 치료적 수단으로서의 역전이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반면, Gelso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은(Gelso, Fassinger, Gomez & Latts, 1995; Hyes, Riker, & Ingram, 1997; Freidman & Gelso, 2000; Gelso, Latts, Gomez, & Fassinger, 2002) 상담에서 상담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전통적 접근의 역전이에 주목하고, 특히 역전이 관리능력과 역전이 행동에 관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다. Friedman과 Gelso(2000)는 역전이 행동을 상담자의 갈등에 기반을 둔, 회기 내 통제되지 않은 역전이를 행동화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요인 분석하여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지하고 개입하려는 '긍정적 역전이 행동'과 지나치게 비판하고 거리를 두려는 '부정적 역전이 행동'이라는 두 하위 영역을 분류하였다. 이 두 영역은, '인간간 거리'라는 측면에서 Bowen의 가족 체제에서 말하는 가족간의 친밀감과 거리감 사이의 딜레마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때문에 상담자의 원가족 역동과 역전이 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상담자의 원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상담장면에서 어떻게 역전이 행동으로 재현되는가를 알아볼 수 있을 지름길이 될 것이다.

실제로 최윤미, 양난미와 이지연(2002)은 한국 상담자들의 심리적 소진의 주 원인으로서 원가족에 대한 분노, 죄책감, 인정욕구, 상담자의 미해결 문제에 대한 역전이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물론 역전이란 현상은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상담의 맥락과 내담자의 특성 및 상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상담자의 문제에서 비롯된 역전이 측면만을 가족관계와 관련시켜보면, 상담자가 원가족에서 미해결된 정서적 욕구를 상담장면에서 충족하려는 경우, 이는 미성숙한 양육자가 자신의 원가족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자녀에게 충족하려할 때, 자기 문제가 대물림되면서 미치는 해악과 마찬가지로 상담성과 뿐만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에게 해악이 될 것이 분명하다. Titleman(1995)은 교육분석과 유사하게, 상담자가 자신의 가족 체제와 역동을 이해하고 자신이 가족 내에서 어떤 역할로서 상호작용하는지, 그 역할과 현재의 개인적인 행동 간의 유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고,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상담자가 자신의 취약점을 자각함으로써 내담자의 일상의 대인관계 패턴에 휘말리지 않고 내담자의 부모와 의도적으로 다른 반응을 보임으로써 Franz Alexander(1963; Alexander & French, 1946)가 치료적 변화의 핵심으로 생각한 '교정적인 정서적 경험', 즉 전이의 반복 혹은 재연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인간이 발달단계에 따라서 성장해 나가듯이(Erikson, 1963), 상담

자는 인성적 측면, 전문적 측면에서 발달해가는 과정이 존재한다. 상담자의 상담경험 및 훈련경험이 많아질수록, 자아분화수준이 높아지는 경향과 마찬가지로 인지, 정서, 행동 간의 개인 내적 교류와 내담자와의 거리조절이라는 대인적 교류에 탄력성이 생긴다. 더불어 상담자는 상담경험과 비례하여 역전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고(Gelso, Fassinger, Gomez & Latts, 1995; Gelso, Latts, Gomez, & Fassinger, 2002; 장세미, 1999; 신교숙, 2000), 역전이 행동이 자제될수록 상담의 만족도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황인호, 2004)가 있었다. 또한 윤정설(2002)은 역전이 행동에서 상담자 성격의 경우 긍정적, 부정적 역전이 행동 모두 유의미한 경로를 이루지만 경력의 경우, 긍정적 역전이 행동에로의 경로만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상담자의 성격적 특성 측면에서의 역전이 행동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은 자신의 원가족에서 자아가 분화될수록 개인 내적, 대인관계적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Bowen의 가족체제이론에 근거하여 자아 분화가 상담자 발달수준 및 역전이 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상담자 경력과 훈련경험이 역전이를 통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상담자 발달수준과 역전이 행동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상담자의 역전이 행동 중에, 특히 상담자의 원가족 역동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상담자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상담자의 자질 및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상담자 발달수준

상담자 발달이론은 Erikson(1963)의 인간 발달 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전문 상담자가 되어 가는 과정을 발달적 관점으로 본 이론이다. 상담자 발달 이론에서는 Erikson이 개인의 발달을 특징적 단계에 따라 나눈 것처럼, 발달 과정을 상담자에게 적용시켜 상담자를 개인적, 전문적으로 발달 단계를 밟아 가는 존재로 보고 상담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특성에 따라 상담자의 발달과정을 몇 단계로 나눈다. 상담자 발달이론들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모형이 제시되었지만, 상담자를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존재로 본 점, 발달수준에 따라 보이는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 이론들은 공통점을 보인다(김현정, 2003).

Fleming(1953)은 처음으로 상담자가 전문가로 수련하고 성장할 때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단계 측면에서 발달수준을 나누었다(Loganbill, 1982; Skovholt & Ronnestad, 1992). 그는 단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상담자가 경험 단계에 따라 모방학습, 교정학습, 창의적인 학습을 한다고 보고 상담자의 학습방법을 슈퍼바이저의 지도방식과 관련시켜 보았다.

국외에서는 Hogan(1964)이 상담자 발달수준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Stoltenberg(1981)의 모형, Loganbill, Hardy와 Delworth(1982)의 모형, Stoltenberg와 Delworth(1987)의 모형, Skovholt와 Ronnested(1982, 1995)의 모형이 제시되었다.

Hogan(1964)은 상담자의 발달 수준은 일련의 연속적이고 위계적인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보았다. 발달수준의 준거로 의존심-자율성, 동기, 자신감으로 보고 상담자 성장과정을 4수준으로 나누었다. 1수준에서 상담자는 불안, 의존, 신경증적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상담자가 되려는 자기 행동에 통찰이

부족하지만 상담에는 동기화되어 있으며 한가지 방법에 의존한다. 2수준에서는 슈퍼비전 관계에서 의존-자율간의 갈등을 겪으며 적응력을 키우려 한다. 이 단계에는 지나친 자신감과 압도당하는 느낌이 교체하고 상담에 대한 동기도 동요가 심하므로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하였다. 3수준에서는 슈퍼바이저에게 조건적으로 의존하며, 전문가로서 자신감이 고양되어 있어 직업 동기도 안정적이며 통찰력도 깊다. 4수준에서는 개인적 자율감, 풍부한 통찰, 개인적 안정감, 안정된 동기, 개인적·전문적 문제를 직면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그는 상담자 수준에 따라 슈퍼바이저의 개입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Loganbill 등(1982)은 상담자 발달단계를 정체기, 혼돈기, 통합기의 세 수준으로 나누고, 상담자 발달 모형은 상담자 인지 특성과 상담자가 되는 과정에 필요한 여덟 가지 주제를 제안했다. 여덟 가지 주제란 상담기술 숙련도, 정서자각, 자율성, 정체성, 개인차이 존중, 상담목표, 동기, 전문적 윤리를 말한다. 그는 전체적으로 상담자 발달수준은 향상하지만 여덟 가지 주제와 관련된 상담자 특성은 발달수준에 따라 진보하기보다는 순환적 양상을 띤다고 하였다.

Stoltenberg와 Delworth(1987)의 상담자 통합모형은 1981년 자신이 제시했던 상담자 복합모형에 Loganbill 등(1982)의 모형을 접합, 수정한 이론이다. 먼저 본인들이 제시한 모형에서 자율성과 동기를 택하고, Longanbill 모형에서 자기자각-타인자각, 동기, 자율성 세 가지 요소를 주요 구조로 삼았다. 상담자 수준이 향상되면서 상담자의 심리적 구조가 변화하면, 상담 중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상담자의 심리구조변화가 표출되는 상담자 행동이나 태도를 영역이라고 말한다. 상담자 발달 모형에서 영역은 개입기술, 평가기술, 대인평가, 내담자 개념화, 개인이해, 이론적 접근, 치료목표, 전문가 윤리 등의 8가지가 있는데 이는 상담자로서 학습해야 할 교육내용과 관련된 개념이다(심흥섭, 1998). 이 모형에서 상담자 발달단계는 의

존단계, 의존-자율 갈등단계, 조건적인 의존단계, 대선배 상담자 단계로 구분한다. 이들은 수준에 따라 인지, 구조적 특성, 정서상태, 대인지각,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에서 차이가 나며 슈퍼바이저가 각 수준에 따라 어떻게 성장-촉진적인 환경을 제공할 지에 대해 기술했다.

Skovholt와 Ronnested(1995)는 상담자 발달단계를 인습적 단계, 전문적 훈련기로의 이행단계, 대가 모방단계, 조건적 자율단계, 탐구단계, 통합단계, 개별화 단계, 개별성 보존 단계, 8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 인습단계는 가족, 친구 등 타인을 위한 역할을 했던 인습적 상담자 수준에 머무는 단계이다. 2단계, 전문적 훈련기로 이행단계(대학원 1년차)는 자신의 인습적 방식의 감정, 사고, 행동을 기꺼이 포기하여 훈련과 엄격한 기준을 요하는 전문적인 세계를 이어주는 시기이다. 3단계, 대가 모방단계(대학원 2·3년차)는 연구, 이론, 기법, 훈련, 접근방법 등에 접근함에 있어 전문가를 모방하거나 지적인 혼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적인 모델을 찾게 되는 단계이다. 4단계, 조건적 자율단계(대학원 마지막, 실습중인 인턴)에서는 가장 강도 높은 훈련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유능성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지며, 실용적인 정보에 가장 흥미를 느낀다. 5단계는 탐구단계(학업마치고 2~5년)로 개인이 이미 성공적으로 탐구해 왔던 것을 한 단계 뛰어넘어 찾는 단계이다. 6단계는 통합단계(학업마치고 2~5년 실무경험)로 확신에 차고 전문적인 자아를 발달시키는 시기로, 자신만의 독창성으로 치료하는 자아를 표현하게 되고 직업에 대한 안정적 만족감을 느끼는 단계이다. 7단계, 개별화 단계(10~30년 실무경험)는 상담자가 자신의 일관적인 스타일을 정착하면서도 동시에 도전정신을 불어넣으면서 확신과 개별화라는 과업을 이루는 단계이다. 8단계는 Erickson(1963)이 말하는 개별성와 통합을 통한 개별성 보존 단계(25~35년 실무경험)로 상담자만의 스타일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깊은 수용과 완전한 표현을 나타내는 단계이다. 이와 같은 국외 상담자 발달이론 연구는 상담자 개인의 심리내적 측면의 성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 연구로는 상담자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슈퍼비전을 제안한 김계현(1992)의 상담자 교육단계모델과 심흥섭(1998)의 모델 등이 제시되어 왔다. 김계현은 상담자 발달이론과 Acker와 Holloway의 슈퍼비전 모형을 수정·결합시켜 상담자 발달단계를 실습준비기, 실습수련, 자기수련기로 구분했으며, 교육내용은 상담대화 기술, 알아차림, 진단 및 처치, 전문성, 평가로 나누었다.

심흥섭(1998)은 국내 상담자 교육이 상담실습과 슈퍼비전을 필수적으로 하는 외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국외의 이론에서 제안하는 발달수준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한국 슈퍼바이저들이 구분하는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를 제작하였고, 그 결과 한국 슈퍼바이저들이 구분하는 상담자 발달수준의 준거개념은 상담대화 기술, 사례이해, 알아차리기, 상담계획, 상담자의 인간적·윤리적 태도로 분류하였다.

가. 상담대화 기술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기본이 되는 의사소통(경청, 요약, 반영, 구체화, 질문, 공감)으로서 개입기술과 구분이 된다. 내담자가 말로 표현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아듣고 이해한다. 내담자에게 상담자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내담자의 비음성적인 언어(얼굴표정, 시설, 자세, 동작)등의 특징을 관찰하고, 억양, 목소리의 변화를 감지한다.

나. 사례이해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 상담 받고자 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내담자의 핵심문제, 결점, 감정, 사회적, 심리적 자원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내담자의 감정양식, 표현양식, 대인관계 양식을 파악한다. 내담자의 기능상태, 문제를 지속시키는 내·외적 역동, 스트레스 근원을 파악한다. 내담자 문제와 역동을 이해하고 이를 이론적 틀에 근거해서 파악한다.

다. 알아차리기

내담자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의미(핵심 메시지)까지 이해한다. 내담자나 상담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정, 생각, 의도, 의문, 기타 감각 등을 알아차린다. 내담자-상담자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과정을 보고 그 의미를 이해한다. 내담자 비음성언어의 특징이 의미하는 바를 안다.

라. 상담계획: 상담목표 설정, 전략, 개입기술 등

사례이해에 기초하여 상담자가 다룰 수 있는 합리적인 상담목표를 세우고 이를 합의한다. 체계적이며 상담 목표에 적합한 상담계획을 수립하고 상담계획에 따라 적절한 상담방법을 선택한다. 내담자 변화를 촉진시키고 증폭시키고자 하는 상담자의 의도가 담긴 대화를 포함한다. 각종 처치 및 개입기술(해석, 직면, 빈의자 기법)이 이 영역에 해당한다

마. 상담자의 인간적 · 윤리적 태도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고 사랑하여 수용하는 태도를 말한다.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이에 포함된다. 상담자 자신에 대한 객관적이고 폭넓은 이해, 상담자로서의 자신감, 가치판단 보류, 내담자에 대한 인내심, 윤리적인 태도, 상담에 대한 신념 등이 이 영역에 해당한다.

2) 자아분화

Bowen의 가족체제론에서 가족이란 '분화되지 않은 자아의 덩어리'로서 가족들은 감정이라는 덩어리에 의해서 얽혀있다(Bowen, 1990, 1981). Bowen의 이론은 개인의 분화수준을 잴 수 있는 8가지 이론적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8가지 개념은 자아분화, 삼각화, 핵가족 정서적 체계, 가족투사과정, 다세

대 전수과정, 형제순위, 정서적 단절, 사회적 퇴행이다. 이중 본 연구과 관련된 몇가지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아분화

자아분화는 자녀가 어머니와의 융합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정서적 자주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말하며 정신내적과 대인관계에 관련된 개념이다.

첫째, 개인 내적 측면으로 지적기능이 정서적 기능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Vandekooi & Handelsman, 1984). 정서적 기능이란 인간 내부의 본능적인 경향으로서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과 융합되어 있다. 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으로부터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외부세계를 지각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되고 주관적인 감정과 객관적인 지적과정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동적인 정서적 체제, 즉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반응하며(Bowen, 1985; Waanders, 1987), 융통성이 부족하고 의존적이며 역기능적 증상을 나타내기 쉽다.

둘째, 대인 관계적 측면으로써 타인과 자기와의 분리이다. 즉 자녀가 어머니와의 융합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서적 자주성을 확립해나가는 장기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로서(Bowen, 1976), 분화는 가족간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면서 이루어진다.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진짜 자아가 발달되지 못하고 가짜 자아가 발달되어 있다(김용태, 2000). 진짜 자아란 타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바뀌거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 바뀌거나 하지 않으며 원칙이나 원리 등에 근거한 자주적이며 독립적이고 융통성 있으며 일관성 있는 자아를 의미한다. 진짜 자아가 발달한 사람은 대인 관계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목표지향적인 삶을 산다. 반면 가짜 자아는 관계 속에서 타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바뀌는 자아, 감정에 주관되는 자아이고 불안에 의하여 관계에 영향을 쉽게 받는 자아이다. 가짜 자아가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타인의 동의와 사랑을 얻는 것이고 이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이며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다. 이들은 사고보다 느낌에 기초해서 행동한다.

자아 분화에는 두가지 수준이 있는데 하나는 기본 분화 수준이고 또하나는 기능 분화수준이다(Papero, 1990). 기본 분화수준은 어릴 때 형성되며 한번 일정한 수준으로 분화가 이루어지면 자아의 특성은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Papero(1990)에 의하면 진짜 자아도 성장해서 훈련과 노력을 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반면 기능 분화 수준은 개인의 불안 수위에 따라, 관계에 따라 변하는 분화 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아분화라는 것은 '성숙'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며(Bowen, 1985), 정신병리를 재는 기준도 아니다. 자아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도 스트레스가 없고 가족관계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역기능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도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봉착하면 역기능적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Kerr, 1981).

또한 자아분화 수준은 0에서 100까지의 수적인 연속선의 한 지점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정상이라는 개념은 없다. 자아분화수준이 낮다는 것은 자아융합의 정도가 심하여 사람들의 감정이나 반응에 민감하고 의존적이다. 긴장, 불안,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며 타인에게 심한 정서적 애착을 보이고, 그런 관계가 깨어질 때 불안해한다. 그러므로 자아분화 수준이 높으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타인과 친근한 정서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확고한 자아 정체감을 유지해나간다. 또한 자신과 타인의 신념과 가치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이러한 신념과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목적지향적 삶을 산다.

나. 핵가족 정서적 체계

정서체계란 분화되지 못하고 융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분화수준이 낮은 부부가 융합되어 이룬 핵가족을 핵가족 정서체계라고 하였다. Bowen은

분화수준의 정도가 비슷한 사람들을 배우자로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분화수준이 낮은 사람들끼리 결혼을 할 경우, 정서적으로 더욱 융합된 상태를 유발하게 된다고 하였다. 핵가족과의 감정적 융합이 커질수록 불안은 커지며 이것은 가족투사과정 개념과 연결된다(Bowen, 1985).

다. 가족 투사 과정

이 개념은 미분화된 아내, 남편, 자녀의 삼각관계에서 한 자녀 이상에게서 장애가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써 몇 세대를 걸쳐 전수되는 과정이다. 부모 역시 자신의 부모의 불안이나 갈등에 대한 투사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Papero, 1990). 특히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부부가 갈등이 심한 경우, 부부의 융합은 자녀에게 전가되어지고 이것을 투사라고 하며 투사의 양은 대개 부모의 분화 정도, 불안의 정도,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선입관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 과정은 어머니의 불안 수위가 높아지면 어머니는 자신보다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것은 과도한 애정 및 과잉보호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지나치게 자녀에 대해서 엄격하거나 자녀의 행동에 제재를 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Papero, 1990). 자녀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어머니의 불안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어머니의 투사대상이 된 자녀는 다른 형제보다 부모에게 가장 감정적으로 애착하게 되고 자아분화 수준 역시 낮아지게 된다(Bowen, 1985).

라. 정서적 단절

정서적 단절은 인간이 자기가 태어난 가정에 대한 정서적 애착 노력이 좌절되었을 경우, 그 대안으로 과거 및 부모와의 과거관계에서 벗어나고자 부모를 멀리하거나 회피하고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와 같이 살거나 부모와 자주 연락을 하면서도 부모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사람은 우울증이나 신체적 질병 같은 내적 증상을 갖게 될

수도 있다(Bowen 1976; Papero, 1990). 반대로 부모와 먼 거리에 살면서 정기적으로 의무적인 방문을 하는 사람의 경우 부모 때문에 거리감이 생겼다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거리감에 대한 책임이 그 자신에게도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정서적으로 단절을 시도하는 자녀는 자신을 분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정서적인 거리두기만을 고집하거나 자신만의 영역을 고집한다. 부모와 정서적 단절을 한 사람은 심할 경우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지만 일단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심한 거부 반응을 나타내며 상대를 밀어내려 하는 역동을 반복하게 될 수도 있다(Papero, 1990). 이들은 가족의 중요성을 부인하고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출과 같은 충동적 행동을 하나,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 진정한 정서적 독립을 얻지는 못한다.

국내에서 제석봉(1989)은 Bowen의 8가지 이론적 개념 중 상호 연동적이고 중복된 개념을 제외하고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이라는 5가지 구성개념을 추출하였다.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은 정서적 기능과 지적기능이 분화 정도를 말하고, '자아의 통합'은 타인의 의견보다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신있는 정도를, '가족투사 과정'은 부모의 걱정이나 불안의 투사대상이 된 정도, '정서적 단절'은 한 개인이 부모와의 정서적 융합을 해결 못하여 반작용으로 아예 부모와 정서적 관계를 끊게 되는 정도, '가족퇴행'은 가족이 단란하고 화목했던 경우에 개인의 내부에 안정감이 있고 불안으로 인해 관계를 유지하려는데 급급하지 않고 자아실현에 관심을 두는 정도를 말한다.

이제까지 자아분화에 관한 몇 가지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국에 비해 자아분화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가족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아분화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간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상호의존성의 관계(송화숙, 1997)를 비롯해서 주로 부부, 대학생, 청소년의 적응수준, 관계 만족도,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자아분화와 대상관계, 방어기제(문성호, 2001)와의 관계, 진로결정과의 관계(김민경, 2003), 직장인 지도력 및 대인관계 능력(백경하, 2003)과의 관계 연구 등, 주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국내연구에서는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역기능적 행동이 감소하며 상호의존도도 줄어들고 학생들의 학교 적응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은 부부만족도가 높고, 직장 내 리더쉽과 대인관계가 원활하며, 대상관계 수준이 높아지고, 방어기제 사용에 있어서도 성숙한 방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담과 직접 관련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외국 문헌에서는 Titleman(1995)의 상담자, 특히 가족상담자의 원가족 자아분화 작업을 실질적으로 연구한 문헌이 있었다.

3) 역전이 행동

역전이는 Freud가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어떤 사고, 감정, 행동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역전이를 개념화하는데 있어서 고전적 접근, 통합적 접근(Kernberg, 1965), 절충적 접근 혹은 제3의 접근(Gelso & Carter, 1994; Gelso & Hayes, 1998) 세 가지의 접근으로 나누어 연구되고 있다.

첫째, 고전적 접근의 역전이는 내담자에 의해 상담자가 자신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이때 내담자 측에서 느끼는 전이반응과 유사하게 분석가 역시 불안을 느끼고 이에 대하여 방어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역전이는 치료에 방해되는 요소로 상담자는 교육분석등을 통해서 이러한 역전이 반응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Peabody & Gelso, 1982).

둘째, 통합적 접근은 Freud 이후 역전이를 개념화하기 위해 다양한 논쟁의 결과로 고전적 역전이가 지나치게 좁은 의미로 해석되는 것에 반발하여

역전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반응하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러한 반응이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상담자의 역전이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Heimann, 1950; Kernberg, 1965; Winnicott, 1949; Little, 1951). 통합적 접근의 역전이에서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정서적 반응은 분석에서 해악이 되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다른 대상에게도 일반적으로 불러일으키는 반응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전적 역전이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사용된다.

셋째, 절충적 접근은 통합적 접근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나선 이론가들에 의해(Gelso & Hayes, 1998), 고전적 접근과 통합적 접근의 중간적 입장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여기서의 역전이는 현실에 토대를 둔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상담자의 갈등과 욕구에서 비롯된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으로 보았다(Gelso & Carter, 1994). 이러한 역전이의 개념은 상담자의 반응이 내담자의 전이와 전이가 아닌 측면 모두를 아우르는 반응이라는 면과, 내담자의 욕구에 대한 상담자 반응이라기보다는 상담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전이로 이해한다는 면에서 고전적 접근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Gelso & Carter, 1994; Lang, 1974).

Gelso와 Carter(1994)는 상담자가 보이는 반응 중 현실에 기반을 둔 내담자에 대한 반응, 즉 내담자의 역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성 있는 반응과 상담자의 과거에 미해결된 욕구에 기반을 두고 내담자에게 보이는 비합리적인 반응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갈등을 행동화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게 된다. 따라서 절충적 접근에서는 역전이를 '역전이 행동'과 '역전이 감정'으로 구별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고전적 접근은 상담자가 보여주는 명확한 행동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통합적 접근은 상담자의 내적인 반응으로서 감정과 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Peabody & Gelso, 1982), ‘역전이 행동’은 상담자의 갈등에 기반을 두고 상담자가 하는 행동을 말하고, 이에 반해 ‘역전이 감정’은 내담자에게 반응하여 상담자가 갖게 되는 복잡한 감정과 생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역전이 감정은 상담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반응으로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반면 역전이 행동은 성공적인 상담의 경우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패한 상담의 경우, 상담이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게 하는 요인이다(Hayes, Riker & Igram, 1997). 사실상 역전이 개념이 정서, 인지, 행동을 구성하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무의식적 요소까지 포함하므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역전이 행동에 대한 정의가 부정확하고 달라지기도 한다(Gelso, Fassinger, Gomez, & Latt, 1995).

이 중 Culter(1958)는 역전이 행동은 상담자가 내담자가 내놓는 자료 중에서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덜 강조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담자의 비합리적이고 유연하지 못한 행동은 유능한 상담자로서 역할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Freidman와 Gelso(2000)는 역전이 행동을 ‘상담자가 자신의 미해결된 문제를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문제들이 회기 내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통합적 접근보다는 고전적 정의나 제3의 정의에 가까운 개념으로서 역전이의 원인이나 결과보다는 오히려 역전이의 ‘통제’에 더 무게를 두고 정의를 내린 것으로 성공적인 치료에 방해요소가 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제까지의 역전이 행동 연구에서는 회피 혹은 철수반응에 대한 측정만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역전이 행동은 과도한 개입과 지나치게 개입을 하지 않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회피나 철수 못지않게 과도한 개입은, 잠재적으로 치료적 관계를 촉진하는 특성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이로 인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말려들거나 혹은 의존적 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과정에서 해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Freidman & Gelso, 2000). 예컨대, 상담자의 미해결된 문제에 자극을 받았을 때 상담자가 객관성을 잃고 불안을 느껴 그 문제로부터 철수하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회기 내에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거나 내담자를 지나치게 지지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Freidman과 Gelso(2000)도 과도하게, 혹은 부적절하게 내담자를 지지하는 행동이나 지나치게 회피하는 행동 모두 사실상 내담자에게 과도하게 개입하여 반응하는 것이며 다만 방향이 다르게 표현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개입하지 않는 태도가 반드시 철회의 사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상담 초기에 너무 지나친 자기 공개를 하는 행동은 과도하게 개입하는 치료자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그러한 행동은 치료자가 부적절한 태도로 자기 개방을 함으로써 내담자의 문제로 야기되는 불안을 방어하거나 개입을 철회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Freidman과 Gelso(2000)는 상담자의 내담자 문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역전이를 각각 '긍정적' 역전이와 '부정적' 역전이 행동으로 명명하였다. 긍정적 역전이 행동은 지지적으로 보이지만 역시 상담자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담상황을 모호하게 하고, 내담자를 의존적이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부적절하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환심을 사려고 다가가는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 역전이 행동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벌하듯이 대하고 회피하거나 비판적,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서 긍정적, 부정적 역전이 행동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긍정적, 부정적 전이와도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전이의 강조점이 내담자의 내적 심리세계에 위치하고 있는 '일인' 심리학을 반영하여 고려한다면, 전이 반응은 왜곡된 것으로 간주된다. 기존의 접근방식과 다르게, 전이를 '두 사람 간'의 심리학이라는 용어로서 볼 때, 전이는 왜곡이 아니라 내담자-치료자 사이 관계에서 일어나고 고무되어야할 내담자의 도식으로 고려

할 수 있다(Gelso & Hayes, 1998). 이러한 치료자를 향한 내담자의 전이 반응의 각각의 타입은 긍정적, 부정적으로 명명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 전이처럼 긍정적 역전이 행동도 치료자가 사랑받고 싶고, 유능한 사람으로 인식되거나, 치료자의 과거에 상실했거나 충족되지 못한 관계들과 관련된 마음속에 일어나는 도식으로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부정적 전이와 유사하게 부정적 역전이 행동은 치료 관계에서 재반복되거나 치료자 입장에서 왜곡되어 나타나는 회피하고 싶은 부정적 갈등 관계를 반영할 수도 있다. Freud도 긍정적 전이가 종종 양가적 상태를 나타내면서 부정적 전이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양가성이 역전이 행동에서도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상담자는 긍정적 역전이 행동과 부정적 역전이 행동 모두를 동시에 나타내기는 쉽지 않지만, 둘 다 동시에 또는 번갈아가며 나타낼 수는 있다.

Stein(1981)은 치료자는 자신에 대한 내담자의 긍정적 반응에는 만족하지만 치료자에 대해 부정적 반응은 전이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긍정적 전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그 이면에는 치료자를 이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한 경쟁심과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치료자 편에서 잘 다루지 않은 것은 내담자가 자기를 좋게 보는 만족을 은밀하게 유지하고 내담자가 겉으로 보이는 태도 뒤에 숨은 공격성을 직면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Peabody와 Gelso(1982)는 상담의 과정과 결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변인 중의 하나로 역전이 행동을 지목한 바 있다. Hayes 등(1997)이 실시한 역전이 행동과 상담결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성공한 사례에서는 역전이 행동이 상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실패한 사례에서는 역전이 행동이 상담결과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측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성공한 사례에서는 역전이 행동을 능가하는 치료동맹이 형성되었기 때문이고 실패한 상담의 경우는 역전이 행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에 실패했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성공적 상담 성과의 필수요소로 역전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국내연구에서 황인호(2004)도 역전이 행동이 상담 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윤정설(2002)은 상담자의 역전이 행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제변인으로서 상담자의 성격과 경력을 연구하였는데 상담자의 성격이 긍정적 역전이와 부정적 역전이 행동에 모두 미치는 직접효과 경로는 유의미했으나 상담자의 경력은 역전이 행동 중 긍정적 역전이 행동에만 유의미했고 부정적 역전이 행동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상담자의 역전이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개입 시 성격적인 측면과 상담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명식(2003)은 고전적 접근에서는 신경증적 갈등, 전체적 접근에서는 왜곡되고 경직된 대상관계 등으로 상담자의 자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상담자의 자기 문제는 상담 장면에서 역전이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아울러 역전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서양에서 제시하는 최선의 방법인 교육분석 조차도 역전이를 일으키는 상담자의 자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여 역전이 관리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자의 역전이에 대한 논의 중에, 특히 상담자의 인격수양을 위한 수도와 수행을 통해 상담자의 자기문제를 뛰어넘어 역전이에 걸리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4) 상담 발달 수준과 역전이 행동과의 관계

Freidman과 Gelso(2000)는 상담자의 역전이 행동을 일으키는 변인으로서 초심 상담자의 상담 경험 부족에 관한 문제들이 사실은 경험미숙이 원인이 아닌 다른 요인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상담자의 상담 경험 부족에서 오는 행동조차도 근원적으로는 역전이의 특성으로 고려될 수 있다

는 것이다. 상담 경험이 부족하다는 변명이 자신을 위로하고자 하는 욕구, 혹은 미해결된 부적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일 수 있다. 따라서 초심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친밀하게 하는 것,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한 회기에서 너무 많이 구조화하려고 하는 것 등은 사실상 상담자의 갈등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상담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상담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상담자 발달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러한 불안을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반면 건강한 성격구조를 가진 상담자의 경우는, 발달 수준과 상관없이, 경험 미숙 때문에 한 회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로운 행동들을 조절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Van Wagoner, Gelso, Hayes, & Diemer, 1991).

Williams(1997)가 초심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초기와 교육말기에 여러 가지 측정을 한 결과, 초심 상담자들이 교육초기에는 자신들의 감정으로 인해 회피반응과 과도한 개입을 하게 되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상담자 발달 수준에 따라 이러한 반응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지각과 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회기 중 상담자의 행동에 상담자의 상담 경험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Tracy(1998)의 연구에서 석사과정 1년 차 상담 경험자와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험자를 비교 연구한 결과, 박사 이상의 상담자가 우월한 척 하거나 지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내담자에게 직면을 잘 시키며, 내담자의 욕구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반응을 자제하였다.

국내 연구의 경우, 김계현(1992)은 상담자 발달단계에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교육은 실습 초급에서 중급까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역전이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자질들도 이 시기에 발달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였다.

윤정설(2002)은 상담경력이나 훈련경험 등이 높아지더라도 부정적 역전이 행동은 쉽게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했지만, 김현정(2003)은 상담자

발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역전이 관리능력은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5) 자아분화와 역전이 행동과의 관계

최근 역전이에 대한 논의는 주로 역전이를 어떻게 상담에 활용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역전이를 상담에 활용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이를 인식하는 것일 것이다(Carry, 1898). 상담자가 역전이라는 주관적 체험의 발생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이 상담과정에 끼치는 영향과 내담자의 역할 기대와 소망에 따른 자신의 반응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자가 자기 자신의 내적 갈등과 맹점을 알고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도상금, 1994).

Steba(1940)는 치료자가 되고자하는 욕구에서 잠재적인 구제자 환상을 논의 했는데, 상담자가 과도하게 내담자 문제에 개입하려는 치료의욕, 전지전능한 기대, 자신을 이상화하려는 소망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수반되는 불안, 죄책감, 과도한 열의, 열등감, 우월감 등이 지배통제 욕구를 낳는다는 것이다.

Sussman(1995)은 상담자들 중에서 원가족 안에서 돌보는 사람, 중재자, 부모화된 아이, 부담을 견뎌내는 역할을 하며 자라는 경우, 어릴 때 사람들에게 자기를 맞추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매우 어려워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Titleman(1995)은 상담자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자하는 욕구는 상담자의 '미분화'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상담자가 지나치게 내담자를 책임지고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문제는 일종의 불안한 어머니, 즉 자녀에 대해 불안해함으로써 자신은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나, 자녀는 더더욱 불안하게 되는 상황과 유사한 '융합'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위 세대의 부모에게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고 발달을 촉진시키는 방향에서 자녀의 미래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기대를

한다(Boszormenyi-Nagy & Krasner, 1986).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녀가 희생될 수도 있듯이, 상담자의 원가족에서 미해결된 욕구가 내담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역전이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Bowen의 가족체제 이론 중, '가족투사'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위 세대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부모는 자신에 대한 부정자아와 긍정자아를 통합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측면이 올라올 때마다 부정 자아만을 분리하여 자녀에게 투사하게 된다(Scharff & Scharff, 1991). 긍정적 자아상으로 투사된 자녀는 좋은 자녀로만 남아있어야 부모 자신의 자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긍정 대상 자녀는 계속 칭찬을 하게 되고 부정 대상 자녀는 계속 야단과 벌을 주게 된다. 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지나치게 지지, 칭찬하면서 개입하려하거나 지나치게 벌주고 비판하려는 역전이 행동이 이러한 맥락에서 상담자 자신의 자아가 통합되지 않는 대상에 대한 투사에 의해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야단치거나 칭찬함으로써 자신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자녀는 부모의 관심이 멀어지거나 철수되는 것에 불안하게 반응하게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불안을 투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담자에게 상담자의 불안을 투사하는 것은 종종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상담자 자신의 불안을 경감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Titleman, 1995). 상담자는 자아로부터 얼마만큼의 불안이 올라오는지를 명확히 알고 또 원가족 내에서 얼마만큼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지를 명확히 알게 됨으로써 자아가 좀더 안정적인 상태를 취할 수 있다. 이는 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기능을 지적 기능으로 통제하여 불안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Bowen(1978)의 견해와 역전이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역전이의 행동화라고 정의한 Freidman & Gelso(2000)의 견해가 맞닿아 자아분화와 역전이 행동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장세미(1999)가 상담자가 불안을 통제할 수 있는 역전이 관리능력이 상담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한 연

구결과로도 설명될 수 있다.

또한 Bowen은 분화가 낮을수록 해결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애착에 더 민감하다고 했는데 애착에 실패한 아동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감정적 거리감을 두는 것을 감정단절이라고 하였다(Titleman, 2003). 이는 상담과정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애착하거나 의존하려는 욕구가 좌절될 때 종종 나타나기도 하는 현상이지만, 상담자와 관련된 직접적 연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다만 상담자와 같이 남을 돕는 직종에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경우, 간호사들이 대인관계에서 정서적으로 거리를 둔다(Wise & Ferreiro, 1995)는 보고들이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owen의 가족체제 개념 중, 개인 내적 측면에서는 '정서적 체제에 대한 지적 통제'와 대인적 측면에서는 '가족투사', '감정단절' 개념을 바탕으로, Freidman와 Gelso(2000)가 요인 분석한, 긍정적 역전이 행동과 부정적 역전이 행동의 근간을 원가족 역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Titleman(1995)은 가족치료든 개인치료든, 상담자는 자신의 가족을 내담자나 내담자의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분리'와 '연결'이라는 상호작용을 토대로 여러 문제들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사실상 가족 안에서의 자아를 규정하는 것과 상담자로서의 자아를 규정하는 것은 서로 맞물려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담자들이 내담자나 그 가족에게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수준과 유사하게, 자신의 가족에는 거리를 두려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상담자 자신의 가족문제가 너무 융합하려는 경향에서 온다면 내담자와는 거리를 두려 할 수도 있고 자신의 가족과 소원한 상담자는 오히려 내담자를 더 가까이하여 융합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날 수 있으며, 반대로 융합 욕구가 강한 상담자가 내담자와 더 가까워지려하거나 감정단절에 익숙한 상담자가 내담자와 거리를 두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Titleman(1995)은 상담자로서 해야 할 역할은, 특히 가족상담가의 경우,

상담자 자신의 가족 내에서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가족 상담자는 자신의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간을 이어주는 중재자, 의사소통자가 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원가족에 대해서 지나친 개입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록 가족치료를 하는 상담자는 형제순위와 상관없이, 책임감이 지나친 맏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잘 훈련된 책임감 있는 상담자가 된다는 것은 '가족과의 맥락 속에서의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상담자가 되고자하는 동기는 종종 개인의 가족 안에서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가 개인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과 유사하게, 내담자나 그 가족들에 대해서 개인적 편향이나 자신의 미해결된 문제들을 투사하여 역전이 행동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원가족에서의 자신의 역기능적 측면을 이해하고 기능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 즉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원가족으로부터 분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상담자 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러한 노력은 상담자가 내담자나 그 가족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회피하려는 역전이 행동을 줄여주는 길일 뿐만 아니라 상담자가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윤미 등(2002)도 한국 상담자의 경우, 심리적 소진을 일으키는 주 요소로, 원가족에 대한 분노, 죄책감, 상담자의 문제에 대한 역전이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역전이와 자아분화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없었다. 다만 제석봉(1989)은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역기능적 행동이나 증상이 많이 발생하고 자아분화 수준과 정신 내적 적응양식을 비교해 볼 때,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대처기제를 사용하여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자아분화수준이 낮을수록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부정, 왜곡, 투사, 합리화 등을 통해 회피하려 든다고 하였다. 송화숙(1997)은 자아분화와 상호의존성의 관련성 연구에서 자아분화가 낮을수록 상

호의존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상호의존자들의 공통되는 특성은 의존성향, 통제욕구, 지나친 책임감, 부인이란 방어기제의 사용,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왜곡된 신념 등이다. 따라서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자아분화와 상호의존성의 관계도 자아분화와 역전이 행동과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6) 상담자 발달 수준과 자아분화와의 관계

상담자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발달은 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이다(Skovholt, 2001). 또한 상담자로서의 경험이 축적될수록 상담자의 감정, 생각, 행동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달되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과 발달은 Bowen이 말하는 개인 내적인 측면과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 '분화'라는 개념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개인 내적 측면에서 보면 분화라는 개념은 감정을 지적 체제에 의해서 얼마나 잘 통제하고 지배하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Bowen에 의하면 인간은 감정체제 이외에 느낌체제와 지적 체제를 갖는다. 어떤 감정에 대해서 지적으로 지각한 내용을 느낌이라고 부르는데, 예컨대 분노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분노를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느낌이 든다면 분노는 감정이고 감정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은 부끄러움이다. 즉 분노라는 감정을 인지적으로 지각하여 생긴 내용을 느낌이라고 부르고, 지적체제는 생각하는 체제를 말한다. 감정 충동에 의한 힘은 지적 능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목표를 향해 움직이도록 만든다. 따라서 지적 체제가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 느낌체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김용태, 2000). 이는 상담자가 스스로의 감정과 느낌, 생각들을 분리하여 스스로에 대하여 자각하는 동시에 내담자의 감정과 느낌, 생각, 행동을 분리시켜 알아차려야만 하는 상담의 상호작용과 연결된다. 따라서 상담이라는 작업과 훈련과정은 자

아분화수준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며, 반대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발달수준에 있어서도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상담자보다 빠르게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둘째,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 보자면, 분화란 분리와 달리 개별성과 연관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Kerr & Bowen, 1988),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다. 개별성은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스스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생물학적 힘이고 연관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연결하면서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물학적 힘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유지하는 역동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김용태, 2000), 분화가 잘 된 사람이란 혼자서도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친밀감을 나누는데 있어서 거리조절을 잘 하는 사람이다. 이를 상담자에 적용해 본다면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상담자란, 내담자와의 공감적 애착과 분리에 탄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대상관계가 안정될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는 문성호(2001)의 연구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문제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상담자들의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수준, 역전이 행동은 어떠한가?

1-1) 상담자들의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은 연령, 결혼상태, 부모와의 동거 여부(미혼의 경우), 자녀 유무(기혼의 경우), 최종 학력, 상담 자격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2) 상담자들의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은 상담자들의, 상담경력, 상담사례, 슈퍼비전 횟수, 교육분석 횟수와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와 역전이 행동 간에는 상관 관계가 있는가 ?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현재, 공공 상담기관(시군구 청소년 상담실 등), 대학부설 상담소, 사설 상담소, 복지관, 종교단체, 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을 하며 최소 6개월 이상의 경력이 있는 상담자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자는 부모 상담의 경우를 설문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상담자의 성별분포는 남자 9명(7%), 여자 111(93%)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35.6세, 연령범위는 만 24세에서 58세였다. 상담자 학력분포는 석사과정 및 기타가 35명(29.2%), 석사·석사수료가 56명(46.7%), 박사과정·수료·학위 29명(24.2%)이었다. 상담자들의 결혼상태는 만 30세 이하 미혼이 28명(23.5%), 만31세 이상 미혼은 31명(26.1%), 기혼 60명(51.4%)이였다. 전체 미혼상담자(49.1%)는 다시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나누어 동거 집단 27명(50%), 비동거 집단 27명(50%)으로 분류하였다. 기혼의 경우, 자녀 유무로 나누어서 자녀가 있는 경우가 44명(81.5%)이었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0명(18.5%)이었다. 상담자의 주 상담 대상을 보면 아동이 20명(16.8%), 청소년이 33명(27.7%), 성인이 66명(45.5%)이었고, 상담 자격증여부는 미취득 42명(35.6%), 심리사급 56명(47.5%), 전문가급 20명(16.9%)이었다.

상담자의 상담경력은 기간이 평균 8.24학기(4년 3개월), 범위는 1학기에서 22학기였고, 상담한 총 사례수는 평균 70.2사례로 범위는 1사례에서 1000사례, 수퍼비전 받은 횟수는 0회부터 200회까지 평균 44.5회였다. 교육분석 받은 횟수는 평균 68.6회고, 범위는 0회부터 1000회까지며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22.9시간이며, 범위는 주 6시간에서 44시간까지였다. 그 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전문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1, 표2와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20)

		N		퍼센트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연 령	20대	3	32	35	평균
	30대	4	48	52	만 35.6세
	40대 이상	2	31	33	(만 24~58세)
	전체	9	111	120	
출생순위	첫째 및 독자		43	35.8	
	둘째 및 셋째		56	46.7	
	넷째이후		21	17.5	
	전체		120	100.0	
결혼상태	만30세이하 미혼		28	23.5	
	만31세이상 미혼		31	26.1	
	기혼		60	50.4	
	전체		119 (무응답 1)	100.0	
부모동거여부 (미혼의 경우)	동거함		27	50.0	
	비동거		27	50.0	
	전체		54 (무응답 6)	100.0	
자녀유무 (기혼의 경우)	자녀유		44	81.5	
	자녀무		10	18.5	
	전체		54 (무응답 6)	100.0	
최종학력	석사과정 및 기타		35	29.2	
	석사수료 및 학위		56	46.7	
	박사과정, 수료 및 학위		29	24.2	
	전체		120	100.0	
현재근무지	공공상담소		18	15.1	
	대학부설상담소		34	28.6	
	사설상담소		28	23.5	
	복지관		10	8.4	
	기타		29	24.4	
	전체		119 (무응답 1)	100.0	
주 상담대상	아동		20	16.8	
	청소년		33	27.7	
	성인		66	55.5	
	전체		119 (무응답 1)	100.0	
상담관련 자격증	미취득		42	35.6	
	상담심리사급		56	47.5	
	상담심리전문가급		20	16.9	
	전체		118 (무응답 2)	100.0	

표 2. 연구 대상의 상담 경력 및 교육 경험의 평균과 표준편차

	N (총 120)	평균	표준편차
상담경력 (학기)	119 (무응답 1)	8.24	7.92
상담사례 (사례)	108 (무응답 12)	70.18	165.59
슈퍼비전 (횟수)	114 (무응답 6)	44.47	100.76
교육분석 (횟수)	113 (무응답 7)	68.06	160.46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발달수준과 자아분화 및 역전이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1)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

심흥섭(1998)이 제작한 50문항의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상담대화기술 10문항, 사례이해 11문항, 알아차리기 9문항, 상담계획 11문항, 인간적·윤리적 태도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당히 일치하지 않는다(1점)'에서 '상당히 일치한다(4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자 발달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 영역별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상담대화기술 .81, 사례이해 .87, 알아차리기 .86, 상담계획 .83, 인간적·윤리적 태도 .7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총점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 별 측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가. 상담대화 기술: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기본이 되는 의사소통으로서 내담자가 말로 표현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아듣고 이해하는지를 측정한다.

나. 사례이해: 내담자 호소문제, 상담 동기 및 내담자의 핵심문제, 결점, 감정, 사회적, 심리적 자원 등에 대한 평가 정도를 이론적 틀에 의거하여 측정한다.

다. 알아차리기: 내담자나 상담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정, 생각, 의도, 의문, 기타 감각 등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라. 상담계획: 상담목표 설정, 전략, 개입기술 등, 사례이해에 기초하여 상담자가 다룰 수 있는 합리적인 상담목표를 세우고 이를 합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마. 상담자의 인간적·윤리적 태도: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고 사랑하여 수용하는 태도와 내담자에 대한 인내심, 윤리적인 태도, 상담에 대한 신념을 측정한다.

2) 자아분화 척도

제석봉(1989)은 Bowen의 8가지 이론적 개념 중, 상호 연동적이고 중복된 개념을 제외하여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 통합, 가족 투사 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이라는 5가지 구성개념을 추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5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자아분화 척도를 제작하였다.

각 영역별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63, 자아통합 .46, 가족투사과정 .76, 정서적 단절 .76 가족퇴행 .80이며, 전체 총점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1이다.

총 36문항으로 된 본 설문은 4점 Likert 평정척도로 가산한다. 문항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4점)' 까지 점수를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많이 된 것을 나타낸다. 각 하위영역 별 측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가. 인지 대 정서적 기능: 인지와 정서 기능이 잘 분화되어 감정 통제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한다.

나. 자아 통합: 자신의 소신껏 행동하며 타인의 의견보다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다. 가족 투사과정: 자신이 부모님의 불안이나 걱정에 대한 투사 대상이 되지 않고 성장했는지를 측정한다.

라. 정서적 단절: 부모와의 적절한 정서적 애착을 맺지 못한 반작용으로 부모와 정서적 관계를 끊게 되는 정도를 측정한다.

마. 가족 퇴행: 가족이 화목하고 건전하게 갈등에 대체해 나간 경우, 개인의 내부에 안정감이 있고 불안으로 인해 관계를 유지하려는데 급급하지 않고 자아실현에 관심을 두는 정도를 측정한다.

3) 역전이 행동 척도

역전이 행동척도는 Freidman과 Gelso(2000)가 개발한 것으로 윤정설(2002)이 번역한 총 21문항으로(빠져있던 21문항을 번역하여 포함시킴), 5점 Likert 평정척도이다. 이 척도는 긍정적 역전이 행동과 부정적 역전이 행동으로 하위척도가 구성된다. 원래는 슈퍼바이저가 자신의 슈퍼바이지의 역전이 행동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역전이 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부정적 역전이 행동이 .71이고 긍정적 역전이 행동이 .82,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4이다. 각 하위영역이 측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가. 긍정적 역전이: 상담자가 상담회기 내에서 내담자를 지나치게 지지하거나 내담자를 의존적이게 만들며, 내담자에게 호의적 행동을 보이면서 과도하

게 내담자에게 개입하려는 행동의 정도를 측정한다.

나. 부정적 역전이: 상담자가 상담회기 내에서 내담자를 벌하듯이 대하고 회피하는 반응을 보이거나 내담자에게 비판적이 되어 내담자에게 거리를 두려는 행동의 정도를 측정한다.

3. 연구 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05년 4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서울, 경기도의 상담 관련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거나 또는 학회, 상담관련 세미나 장소에서 상담자 15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126부가 회수되었고 회수율은 84%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미완성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3부, 상담 경험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부, 설문지 자체가 잘못된 경우 1부를 제외하고, 무응답치가 있는 자료까지 포함하여 최종분석에 총 120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초 통계자 요인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과 자아분화 및 역전이 행동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 및 사후검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상담자의 전문적 변인인 상담경력과 상담사례, 슈퍼비전, 교육분석과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수준, 역전이 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상담자 발달수준 및 자아분화가 역전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1.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과 상담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의 집단간 차이

본 연구는 상담자들의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과 상담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의 차이와 상담자의 전문적 변인에서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 및 사후검증, t-검증을 실시하였다. 상담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으로 연령, 성별, 결혼상태, 부모동거여부(미혼), 자녀유무(기혼), 최종학력, 상담관련 자격증을 각 집단 특성별로 분류하였다. 상담자의 전문적 특성 변인은 상담경력(학기), 상담사례(사례), 슈퍼비전(횟수), 교육분석(횟수)로 나누었다.

1)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및 역전이 행동에서 성별, 연령, 결혼상태, 부모와의 동거여부, 자녀유무에 따른 변량분석 및 t-검증 결과

연령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각 집단간 변량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자아분화와 역전이 행동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상담자 발달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2, 109) = 5.84$, $p < .01$. 이에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40세 이상과 20대·30대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높은 상담자일수록 상담자 발달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되고 그로 인한 인간적 성숙이 상담자 발달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연령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연령	N (총 12O)	평균	표준편차
상담자 발달수준	20대	33	141.09	9.41
	30대	49	148.10	18.53
	40세 이상	30	154.97	17.53
	전체	112(무응답 8)	147.88	16.78
자아분화	20대	35	106.71	8.80
	30대	50	105.38	8.55
	40세 이상	30	106.63	7.96
	전체	115(무응답 5)	106.11	8.43
역전이 행동	20대	33	50.82	8.66
	30대	50	50.42	8.43
	40세 이상	31	52.26	9.80
	전체	114(무응답 6)	51.04	8.84

표 4. 연령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의 차이분석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사후검증
상담자 발달수준	집단간	3030.06	2	1515.03	5.84**	1=2 < 3
	집단내	28244.18	109	259.12		
	전체	31274.25	111			
자아분화	집단간	47.64	2	23.82	0.33	
	집단내	8059.89	112	71.96		
	전체	8107.53	114			
역전이 행동	집단간	66.83	2	33.41	0.42	
	집단내	8769.02	111	79.00		
	전체	8835.86	113			

* $p < .05$ ** $p < .01$ *** $p < .001$

주2. 집단 1: 20대, 집단 2: 30대, 집단 3: 40대

결혼상태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에, 각 집단간 변량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자아분화와 역전이 행동은 결혼상태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상담자 발달수준은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F(2, 108) = 3.16$, $p < .05$. 이에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과 상관없이 미혼과 기혼

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기혼이 미혼에 비해 상담자 발달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생활을 통한 인간적 성숙 역시 상담자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표 5. 결혼상태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N (총 120)	평균	표준편차
상담자 발달수준	만30세이하 미혼	25	143.48	8.67
	만31세이상 미혼	30	144.33	19.30
	기혼	56	151.82	17.53
	전체	111(무응답 9)	147.92	16.85
자아분화	만30세이하 미혼	27	106.74	9.08
	만31세이상 미혼	29	105.10	8.38
	기혼	58	106.29	8.32
	전체	114(무응답 6)	106.10	8.46
역전이 행동	만30세이하 미혼	26	49.88	9.13
	만31세이상 미혼	30	52.83	8.57
	기혼	57	50.74	8.89
	전체	113(무응답 7)	51.10	8.85

표 6. 결혼상태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의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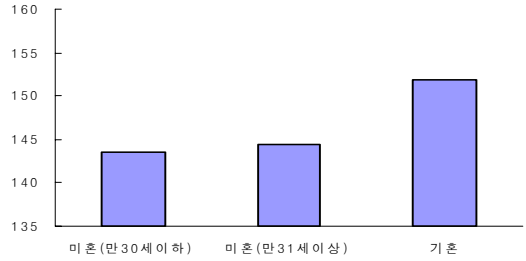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사후검증
상담자 발달수준	집단간	1,731.14	2	865.57	3.16*	1=2 < 3
	집단내	29,519.12	108	273.32		
	전체	31,250.27	110			
자아분화	집단간	42.04	2	21.02	0.28	
	집단내	8,061.89	111	72.63		
	전체	8,103.93	113			
역전이 행동	집단간	136.05	2	68.02	0.86	
	집단내	8,649.87	110	78.63		
	전체	8,785.92	112			

* $p < .05$ ** $p < .01$ *** $p < .001$

주2. 집단 1: 만 30세 이하 미혼, 집단 2: 만 30세 이상 미혼, 집단 3: 기혼

결혼상태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의 그래프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 결혼상태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의 차이 그래프



상담자 발달수준과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이, 미혼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여부, 기혼인 경우, 자녀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7,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미혼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의한 차이는 역전이 행동에서 유의미하였다, $t(50) = 2.57$, $p < .05$. 즉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독립해 나온 미혼 상담자보다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상담자가 가족이나 부모로부터의 거리감 조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역전이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혼의 경우, 자녀의 유무는 상담자 발달수준과 자아분화 그리고 역전이 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 미혼 상담자의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과의 차이분석

		N (총 54)	평균	표준편차	t값
상담자 발달수준	동거	25 (무응답 2)	141.20	13.72	-.51
	비동거	26 (무응답 1)	143.15	13.45	
자아분화 수준	동거	26 (무응답 1)	104.65	8.39	-.90
	비동거	27	106.85	9.36	
역전이 행동	동거	27	54.35	7.58	2.57*
	비동거	26 (무응답 1)	48.31	9.26	

* $p < .05$

표 8. 기혼 상담자의 자녀유무와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과의 차이분석

		N (총 54)	평균	표준편차	t값
상담자 발달수준	자녀유	42(무응답 2)	152.43	16.86	1.40
	자녀무	10	143.90	18.71	
자아분화 수준	자녀유	43(무응답 1)	106.44	7.96	.072
	자녀무	9 (무응답 2)	106.22	10.04	
역전이 행동	자녀유	42(무응답 2)	50.57	7.93	-1.99
	자녀무	9 (무응답 1)	56.67	10.00	

상담자 발달수준과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의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 최종학력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의 차이분석

		N(총 120)	평균	표준편차	F 값
상담자 발달수준	석사과정 및 기타	35	145.94	15.78	2.33
	석사수료 및 학위	56	146.27	18.63	
	박사과정, 수료 및 학위	29	154.03	15.52	
	전체	120	148.05	17.31	
자아분화 수준	석사과정 및 기타	35	104.49	9.10	1.29
	석사수료 및 학위	56	107.30	8.70	
	박사과정, 수료 및 학위	29	107.00	6.88	
	전체	120	106.41	8.45	
역전이 행동	석사과정 및 기타	35	52.03	8.07	1.45
	석사수료 및 학위	56	51.79	8.42	
	박사과정, 수료 및 학위	29	48.69	10.19	
	전체	120	51.11	8.81	

위의의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그리고 역전이 행동에서 최종학력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격증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으며 각 집단간 변량분석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 자격증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N (총 120)	평균	표준편차
상담자 발달수준	미취득	38	144.05	15.45
	상담심리사급	52	143.67	13.68
	상담심리전문가급	20	165.50	16.44
	전체	110(무응답 9)	147.77	16.92
자아분화	미취득	41	105.20	9.08
	상담심리사급	54	106.43	8.27
	상담심리전문가급	18	108.22	6.16
	전체	113(무응답 7)	106.27	8.28
역전이 행동	미취득	40	52.20	8.78
	상담심리사급	54	52.00	8.82
	상담심리전문가급	18	46.00	7.88
	전체	112(무응답 8)	51.11	8.88

표 11. 자격증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의 변량분석 결과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사후검증
상담자 발달수준	집단간	7684.98	2	3,842.49	17.48***	1=2 < 3
	집단내	23520.33	107	219.81		
	전체	31205.31	109			
자아분화	집단간	117.28	2	58.64	0.85	
	집단내	7574.75	110	68.86		
	전체	7692.03	112			
역전이 행동	집단간	560.31	2	280.15	3.72*	1=2 > 3
	집단내	8192.40	109	75.16		
	전체	8752.71	111			

* $p < .05$ ** $p < .01$ *** $p < .001$

주3. 집단 1: 자격증 미취득, 집단 2: 심리사급, 집단 3: 전문가급

위의 표 10, 표11을 살펴보면 자격증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상담자 발달수준, $F(2, 107) = 17.40$, $p < .001$ 과 역전이 행동, $F(2, 109) = 3.72$, $p < .05$ 에서 유의미하였다. 이에 각기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상담자 발달수준에서는 상담심리 전문가급과 자격증 미취득・상담심리사급이 각기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역전이 행동에서도 역시 상담심리 전문가급과 자격증 미취득・상담심리사급이 각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상담자가 상담 전문가급의

자격 수준을 갖고 있는 경우, 상담자 발달수준이 높았으며 역전이 행동도 덜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의 차이 그래프는 그림 2에, 역전이 행동 차이 그래프는 그림 3에 제시되었다.

그림 2. 자격증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의 차이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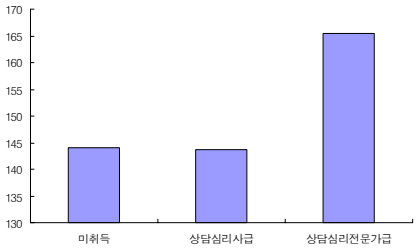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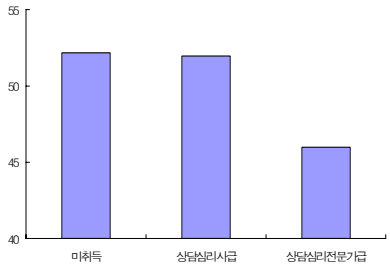


그림 3. 자격증에 따른 역전이 행동의 차이 그래프



이제까지 상담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수준, 역전이 행동의 집단간 차이의 분석결과, 첫째, 상담자 발달수준의 경우, 연령이 높은 집단, 기혼 집단,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상담자 발달수준이 높았으나 학력수준은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역전이 행동이 덜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미혼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에서 역전이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과 상담자 전문적 변인에서의 상관

상담자의 전문적 변인인 상담경력(학기), 상담사례(사례), 슈퍼비전(횟수), 교육분석(횟수)과 상담발달수준, 자아분화 및 역전이 행동과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상담자의 전문적 변인과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및 역전이 행동과의 상관 분석

		전문적 변인			
		상담경력	상담사례	수퍼비전	교육분석
전문적 변인	상담경력	1			
	상담사례	.62**	1		
	수퍼비전	.21*	.57**	1	
	교육분석	.35**	.44**	.73**	1
발달수준		.48**	.36**	.15	.25**
자아분화		.17	.19*	-.03	.02
역전이행동		-.32**	-.28**	-.17	-.16

* $p < .05$, ** $p < .01$

N=120

상관분석 결과, 상담자 발달수준은 상담경력(r=.48, $p < .01$), 상담사례(r=.36, $p < .01$) , 교육분석(r=.25, $p < .01$)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자아분화수준은 상담사례(r=.19, $p < .05$)에서만 정적 상관을 이루었고, 역전이 행동은 상담경력(r=-.32, $p < .01$), 상담사례(r=-.28, $p < .01$)와 부적 상관을 이루었다. 즉 상담의 경력이 오래될수록, 상담한 상담사례 수가 많을수록, 교육분석을 많이 받았을수록 상담자 발달 수준이 높았다. 또한 상담한 상담사례 수가 많을수록 자아분화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전이 행동의

경우 상담경력이 오래될수록, 그리고 상담사례가 많을수록 역전이 행동이 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간의 상관 분석 및 하위변인에서의 상관관계

상담발달수준, 자아분화 수준 및 역전이 행동과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 간의 상관 분석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수준	역전이 행동
상담자 발달수준	1		
자아분화 수준	0.29**	1	
역전이 행동	-0.38**	-0.36**	1

* $p < .05$, ** $p < .01$
N=120

상관분석 결과, 상담자 발달수준과 자아분화 전체 관계는 정적 상관을 이루었고(r=.29, $p < .01$), 상담자 발달수준과 역전이 행동 전체와의 관계는 부적상관을 이루었으며(r=-.38, $p < .01$), 자아분화 수준과 역전이 행동 전체와의 상관관계는 부적상관을 이루었다(r=.36, $p < .01$). 즉 상담자 발달수준이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지며, 상담자 발달수준이 높을수록 역전이 행동이 덜 일어나며 또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역전이 행동도 덜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상담자 발달수준과 자아분화의 각 하위변인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14에 제시하였다.

표 14. 상담자 발달수준과 자아분화의 각 하위변인간 상관 분석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수준				
		상담대화 기술	사례 이해	알아 차리기	상담 계획	인간적·윤리 적상담태도	인지 대 정서	자아 통합	가족투사 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 퇴행
상담자 발달 수준	상담대화기술	1									
	사례이해	.78**	1								
	알아차리기	.78**	.79**	1							
	상담계획	.78**	.78**	.73**	1						
	인간적·윤리적 상담태도	.66**	.61**	.61**	.53**	1					
자아 분화 수준	인지 대 정서	.34**	.32**	.17	.20*	.19*	1				
	자아통합	.17	.24**	.17	.19*	.01	.14	1			
	가족투사과정	.20*	.26**	.09	.27**	.22*	.29**	-.02	1		
	정서적 단절	.04	.04	-.01	.14	.14	-.07	-.21*	.27**	1	
	가족퇴행	.08	.04	-.07	.17	.16	.06	-.03	.30**	.59**	1

* $p < .05$, ** $p < .01$
N=12O

상담자 발달수준의 하위요인과 자아분화 수준의 하위요인 별 상관을 살펴보면 인지 대 정서는 상담대화기술, 사례이해, 상담계획, 인간적 윤리적 상담태도에서 .34～.19 범위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이었고($p < .05$), 알아차리기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아통합은 사례이해하기 .24과 상담계획 .19에서만 유의하고($p < .05$) 상담대화기술, 알아차리기, 인간적 윤리적 태도와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족투사과정은 상담대화기술, 사례이해, 상담계획에서 .27～.20 범위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이었고($p < .05$) 알아차리기 인간적 윤리적 태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정서적 단절과 가족퇴행은 모든 하위변인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 생각, 의도, 기타 감각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제외하고, 상담자 발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지와 정서 능력이 잘 분화되어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사례이해나 상담계획 측면에서 상담자 발달수준이 발달함에 따라

타인의 의견에 의해 자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자아통합 능력이 향상되며 상담 대화기술, 사례이해, 상담계획 면에서의 상담자 발달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족투사과정에서 비롯된 불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서적 단절과 가족퇴행 측면은 상담자 발달과정과 상관 관계가 없었다.

상담자 발달수준과 역전이 행동의 각 하위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15에 제시되었다.

표 15. 상담자 발달수준과 역전이 행동의 각 하위 변인 간 상관 분석

		상담자 발달수준					역전이 행동	
		상담대화기술	사례이해	알아차리기	상담계획	인간적·윤리적 상담태도	긍정적 역전이	부정적 역전이
상담자 발달 수준	상담대화기술	1						
	사례이해	.78**	1					
	알아차리기	.78**	.79**	1				
	상담계획	.78**	.78**	.73**	1			
	인간적·윤리적 상담태도	.66**	.61**	.61**	.53**	1		
역전이 행동	긍정적 역전이	-.34**	-.31**	-.18**	-.32**	-.09	1	
	부정적 역전이	-.37**	-.37**	-.26**	-.32**	-.36**	.58**	1

* $p < .05$, ** $p < .01$
N=120

표 15에서와 같이, 상담자 발달수준과 역전이 행동의 각 하위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긍정적 역전이 행동은 상담대화기술, 사례이해, 알아차리기, 상담계획과 -.34~-.32 범위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이루었으나($p <$ .01) 인간적 윤리적 상담태도에서만 유의하지 않았다. 부정적 역전이는 상담자 발달수준 모든 하위변인에서 -.37~-.26 범위에서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p <$ .01).

결과적으로, 상담자 발달수준이 높아질수록 대부분의 역전이 행동은 자제

되는데 다만, 인간적 윤리적 상담태도를 많이 가진 상담자는 긍정적 역전이 행동을 자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수용하는 인간적·윤리적 상담태도가 몸에 배어있을 경우 내담자를 지나치게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도와주려는 상담자의 태도를 자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자아분화 수준과 역전이 행동의 각 변인의 하위변인과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16에 제시되었다.

표 16. 자아분화와 역전이 행동의 각 하위 변인 간 상관 분석

		역전이 행동		자아분화 수준				
		긍정적 역전이	부정적 역전이	인지 대 정서	자아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역전이 행동	긍정적 역전이	1						
	부정적 역전이	.58**	1					
자아분화 수준	인지 대 정서	-.26**	-.24**	1				
	자아통합	-.34**	-.07	.14	1			
	가족투사과정	-.16	-.22*	.29**	-.02	1		
	정서적 단절	-.08	-.32**	-.07	-.21*	.27**	1	
	가족퇴행	-.05	-.20*	.06	-.03	.30**	.59**	1

* $p < .05$, ** $p < .01$
N=12O

분석 결과 인지 대 정서는 긍정적 역전이 행동, - .26과 부정적 역전이 행동 -.24로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이루었으나($p < .01$), 자아통합은 긍정적 역전이 행동 -.34에서만 유의미하고($p < .01$), 부정적 역전이 행동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 나머지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은 각각 -.22 -.32 -.20로 부정적 역전이 행동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이루었고 긍정적 역전이 행동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자아분화 수준과 역전이 행동과의 관계에서 인지와 정서가 잘

분화되어 감정통제 능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부정적 역전이 행동 모두를 잘 통제할 수 있고, 남의 시선이나 의견보다 소신껏 행동하는 상담자의 경우, 지나치게 내담자를 지지하고 호의적으로 행동하려는 긍정적 역전이 행동이 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족의 투사 대상이 되어 불안이 많거나, 부모와의 적절한 애착의 좌절로 가족과의 정서가 단절되었거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여 가족 갈등을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습득하지 못한 상담자일수록 내담자를 회피하고 비판함으로써 거리를 두려는 부정적 역전이 행동을 많이 나타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3. 역전이 행동에 대한 상담자 발달수준·자아분화의 회귀분석

1) 상담자 발달수준이 역전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자 발달수준 하위변인이 긍정적 역전이 행동과 부정적 역전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18에 제시하였다.

표 17. 상담자 발달수준 하위변인과 긍정적 역전이 행동사이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언변인	β	R^2	ΔR^2	F Change
	(상수)	36.06			
긍정적 역전이 행동	상담자 대화기술	-.39	.12	.12	15.02***

* $p < .05$ ** $p < .01$ *** $p < .001$
N=120

위의 표 17에서 보듯, 상담자 발달수준의 하위변인, 즉 상담대화기술, 사례이해, 알아차리기, 상담계획, 상담자 인간적·윤리적 태도 중 상담자 대화기술은 긍정적 역전이 행동을 12%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상담자 발달수준 하위변인과 부정적 역전이 행동사이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언변인	β	R^2	ΔR^2	F Change
부정적 역전이 행동	(상수)	48.831			
	상담자 대화기술	-.40*	.14	.14	18.13***
	사례이해	-.33*	.17	.03	4.48*

* $p < .05$ ** $p < .01$ *** $p < .001$
N=120

위의 표 18에서와 같이, 상담자 발달수준의 하위변인, 즉 상담대화기술, 사례이해, 알아차리기, 상담계획, 상담자 인간적·윤리적 태도 중, 상담자 대화기술과 사례이해가 총 17%의 설명량을 나타냈으며, 각각의 설명량은 상담자 대화기술이 14% 그리고 사례이해가 3%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 자아분화 수준이 역전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19) 자아분화수준의 하위변인과 긍정적 역전이 행동사이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언변인	β	R^2	ΔR^2	F Change
긍정적 역전이 행동	(상수)	47.15			
	자아통합	-.82***	.12	.13	15.74***
	인지 대 정서	-.41**	.18	.06	7.26**

* $p < .05$ ** $p < .01$ *** $p < .001$
N=120

위의 표 19에서와 같이, 자아분화의 하위변인, 즉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과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 과정, 정서적 단절과 가족퇴행 중 자아통합과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이 총 19%의 설명량을 나타냈으며, 각각의 설명량은 자아통합이 13%,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이 6%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20. 자아분화수준의 하위변인과 부정적 역전이 행동사이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언변인	β	R^2	ΔR^2	F Change
부정적 역전이 행동	(상수)	50.405			
	정서적 단절	-.64***	.11	.11	13.98***
	인지 대 정서	-.64**	.18	.07	9.32**

* $p < .05$ ** $p < .01$ *** $p < .001$

N=12O

위의 표 20에서 보듯이 자아분화의 하위변인, 즉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과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 과정, 정서적 단절과 가족퇴행 중 정서적 단절과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이 총 18%의 설명량을 나타냈으며, 각각의 설명량은 정서적 단절이 11%,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이 7%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상담자의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와 역전이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상담자의 역전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전문적 변인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수준, 역전이 행동 간에는 부분적으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우선 연령이 높은 집단, 기혼 집단,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상담자 발달수준이 가장 높았다. 여기서 연령과 결혼과 같은 개인적 발달과정이 상담자 발달과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상담자의 전문적 훈련 외에 인간적 성숙도가 상담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그러나 학력수준은 상담자 발달수준과 역전이 행동 모두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장세미(1999)가 연구한 역전이 관리능력의 학력수준 별 차이 분석 결과가 유의하게 나온 것과는 다른 결과로, 비록 역전이 관리능력과 통제되지 않은 역전이라는 의미에서의 역전이 행동이 정적 상관관계를 이룬다 하더라도(Freidman & Gelso, 2000), 역전이 관리능력과 역전이 행동이 다른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자격증 미취득 집단과 심리사급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자에 비해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들이 역전이 행동을 가장 덜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역전이 행동의 경우는 상담에 대한 지적 훈련보다는 상담 실제 경험과 훈련이 역전이 행동을 통제하는 데 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한 결과였다. 그리고 미혼 상담자의 경우,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집단보다 부모와 동거하는 집단에서 역전이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분화수준은 평균치에서는 부분적으로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변인은 없었다. 다만 미혼

상담자의 경우, 자아분화 평균점수에서 부모 동거 여부가 유의미한 차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상담자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미혼 상담자보다 가족으로부터의 분화가 덜 되어 역전이 행동을 더 많이 일으킨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상담자 전문적 변인과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과는 부분적으로 상관이 있었다. 상담자 발달수준은 상담의 경력이 오래될수록, 상담한 상담사례 수가 많을수록, 교육분석을 많이 받았을수록 상담자 발달 수준이 높았다. 또한 상담한 상담사례 수가 많을수록 상담자의 자아분화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상담자보다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는 상담자가 많은 한국 상담계의 현실 상, 상담경력보다 상담사례가 더 의미 있는 변인이기 때문에 자아분화 수준이 다른 변인보다 상담 사례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온 것은 상담자가 상담을 많이 할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였다. 역전이 행동의 경우는, 상담경력이 오래될수록, 그리고 상담사례가 많을수록 역전이 행동이 덜 나타나지만 슈퍼비전과 교육분석 횟수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상담사례 외에 상담경력, 슈퍼비전과 교육분석 모두 역전이 행동 전체 점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윤정설(2002)의 연구(하위변인에서는 긍정적 역전이 행동은 상담경력, 상담사례, 슈퍼비전과 상관이 있었으나 부정적 역전이 행동과는 모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며 또한 학력별 차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전이 관리능력은 슈퍼비전와 교육분석 측면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한 장세미(1999)의 연구와 다른 결과였다. 결과적으로 역전이 관리 능력은 슈퍼비전이나 교육분석으로 향상될 수 있지만 역전이 행동, 특히 긍정적 역전이 행동보다 부정적 역전이 행동 자체는 슈퍼비전이나 교육분석을 통해 역전이 행동이 덜 일어나게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은 상관이 있었다. 상담자

발달수준이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지며, 상담자 발달수준이 높을수록 역전이 행동이 덜 일어나며 또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역전이 행동도 덜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가 서론에서 언급한 바대로 상담자는 자신의 원가족에서 자아가 분화될수록 개인 내적, 대인관계적 탄력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이유로 역전이 행동을 덜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상담자 경력과 훈련경험이 많아질수록, 즉 상담자 발달수준이 높아질수록 역전이를 더 잘 통제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결과였다.

넷째, 상담자 발달수준, 자아분화, 역전이 행동의 각 하위변인 간에는 부분적으로 상관이 있었다. 우선 상담자 발달수준과 자아분화의 하위변인 간 상관관계를 보면, 상담자와 내담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 생각, 의도, 기타 감각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제외하고, 상담자 발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지와 정서 능력이 잘 분화되어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사례이해나 상담계획 측면에서의 상담자 발달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타인에 의해 자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 소신껏 행동하는 자아통합 능력이 향상되며 상담 대화기술, 사례이해, 상담계획에서의 상담자 발달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족투사과정에서 비롯된 불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정서적 단절과 가족퇴행 측면은 상담자 발달과정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다음으로 상담자 발달수준과 역전이 행동 하위변인 간에는 부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었다. 상담자 발달수준이 높아질수록 대부분의 역전이 행동은 자제되는데 다만, 인간적·윤리적 상담태도를 많이 가진 상담자는 긍정적 역전이 행동을 자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수용하는 인간적·윤리적 상담태도가 몸에 배어있을 경우, 내담자를 지나치게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도와주려는 상담자의 태도를 자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김현정(2003)의 연구에서 상담자 발달수준과 역전이 관리능력

모든 하위변인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이룬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아분화 수준과 역전이 행동의 하위변인과 부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아분화 수준과 역전이 행동과의 관계에서 인지와 정서가 잘 분화되어 감정통제 능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부정적 역전이 행동 모두를 잘 통제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남의 시선이나 의견보다 자기중심에 의해 소신껏 행동하는 상담자의 경우, 지나치게 내담자를 지지하고 호의적으로 행동하려는 긍정적 역전이 행동이 통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가족의 투사 대상이 되어 불안이 많거나, 부모와의 적절한 애착의 좌절로 가족과의 정서가 단절되었거나, 화목하고 건전하게 갈등에 대처하는 가정에서 합리적 대체능력을 습득하지 못한 상담자일수록 내담자를 회피하고 비판함으로써 거리를 두려는 부정적 역전이 행동을 많이 일으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상담자 발달수준과 자아분화가 역전이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의 발달수준과 자아분화의 각 하위변인들 중 긍정적 역전이 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는 변인은 상담자의 발달수준의 하위변인 중 상담대화 기술이었으며, 부정적 역전이 행동에서는 상담대화 기술과 사례이해였다. 또한 긍정적 역전이 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자아분화의 하위변인은 긍정적 역전이의 경우, 자아통합과 인지 대 정서 기능 변인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역전이의 경우는 감정적 단절과 인지 대 정서 기능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을 보면, 상담자 발달수준에서는 상담대화 기술이 긍정적 역전이 행동을 12% 설명하였으며, 부정적 역전이 행동은 상담대화 기술과 사례이해 전체가 17%, 각각은 14%, 3%였다. 자아분화에서는, 긍정적 역전이 행동은 자아통합과 인지 대 정서 기능 변인 전체가 19%였고 각각은 13%, 6%였다. 반면 부정적 역전이 행동은 정서적 단절이 11%, 인지 대 정서 기능 변인이 7%로서 총 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상담자 발달수준 측면에서는,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기본이 되는 의사소통으로서 내담자가 말로 표현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아듣고 이해하는 상담대화기술이 긍정

적, 부정적 역전이 행동 모두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분화 측면에서는 인지와 정서를 구분하여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긍정적, 부정적 역전이 행동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긍정적 역전이의 경우는 타인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소신껏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아통합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역전이의 경우는 부모와의 애착의 좌절로 인한 가족간의 정서 단절을 경험한 정도가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의 인구통계학적, 전문적 특성들은 상담자 발달수준, 역전이 행동들을 부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나 자아분화는 상담사례와만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이 행동의 경우, 역전이 행동을, '역전이 감정이 통제되지 못하여 행동화되는 것'이라고 정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이 관리능력에 대한 연구에서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슈퍼비전과 교육분석의 경우, 역전이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다고 나온 결과는 최명식(2004)이 역전이 행동은 역전이 관리 능력과 달리 슈퍼비전과 교육분석으로도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을 입증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역전이라는 현상이 상담자 개인의 특성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상담의 맥락, 내담자의 특성과 상태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줄 것이다. 자아분화의 경우는 각각의 변인의 평균치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서 연구문제를 좀 더 명확히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또한 상담자의 다른 개인적 요인이나 상황적인 요인들의 맥락 안에서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둘째, 역전이 행동과 자아분화 수준과의 관계에서 인지와 정서를 구별하여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은 부정적, 긍정적 역전이 행동 모두에 관련이 있다

는 결과는 역전이 행동에서 역전이 감정의 '통제' 부분이 강조되었다는 점(Friedman & Gelso, 2000)을 입증하는 결과였다.

또한 긍정적 역전이 행동의 경우는 인지로 정서를 통제하는 능력과 자아를 통합하는 능력, 모두 개인 내적 측면과 상관이 있었고, 부정적 역전이 행동의 경우는 인지로 정서를 통제하는 능력인 개인 내적 측면 외에, 대인 관계적 측면인 부모와 애착과 관련된 정서적 단절상태, 부모의 투사의 대상이 되어 불안한 정도, 화목하고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가족 구성원인지의 여부과 모두 부정적 역전이 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는, 원가족과의 문제에서 부정적 역전이 행동과 긍정적 역전이 행동의 근간이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었다. 다시말해 상담자가 상담의 경력과 훈련경험이 높아질수록 상담 회기 내에 자신의 개인 내적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은 향상됨으로써 긍정적 역전이 행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지만 좀 더 근원적인 원가족간 역동과 관련된 부정적 역전이 행동은 상담경험, 훈련 경험이 많아지거나, 교육분석을 받더라도 자제하기 쉽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윤정설(2002)이 역전이 행동 중 상담경력이 긍정적 역전이 행동과는 상관이 있지만, 부정적 역전이 행동과 상관이 없다는 결과의 원인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혼 상담자 중 부모와 동거여부에 따라서 역전이 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Titleman(1995)이 상담자와 내담자, 혹은 상담자와 내담자 가족간의 거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족간 거리조절이 잘 안 된 경우, 상담 장면에서 역전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과였다.

셋째, 자아분화가 부정적 역전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 대 정서라는 개인 내적 변인 외에 원가족 관계에서는 정서 단절 부분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결과는, 상담자의 원가족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부모와의 애착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애착의 문제가 내담자에게 뿐만 아니라 상담자에게도 중요한 요소로 상담자 교육과정에서 개인적 교육분석 뿐만 아

니라 자신의 원가족 역동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애착문제와 같은 상담자의 자기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상담자 자신의 소진을 줄이고 상담의 만족도를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표집이 어려운 관계로 더 많은 수의, 다양한 대상들을 표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러 기관에서 근무하는 보다 많은 대상들을 표집하여 연구대상의 대표성을 높여야 하겠다.

둘째, 측정도구가 자기 보고식 평정 도구였기 때문에 설문에 응한 상담자의 자기 방어를 제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상담자 발달수준이나 역전이 행동의 경우 추후의 설문지는 자기 보고식이 아니라 슈퍼바이저에 의한 설문을 고려해 봄이 연구대상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 변인으로 자아분화 수준 한 가지만을 선택하였는데, 상담자 발달수준과 역전이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좀 다양한 상담자의 개인특성을 변인으로 선택하거나 상담 맥락과 내담자 특성과 상태 등, 역전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민경(2003). 가족체제유형과 자아분화 및 진로결정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용태(2000). **가족치료 이론.** 서울: 학지사.

김혜숙(2003).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서울: 학지사

김계현(1992). 상담교육방법으로서의 개인 슈퍼비전 모형에 관한 복수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4(1),** 19-53. 서울: 한국심리학회

김현정(2003). 상담자 발달수준과 자기위로능력 및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도상금(1994). 심리치료 장면에서 치료자의 경험, 역전이 개념과 활용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인간이해, 5.**

문성호(2001). 대상관계에 따른 자아방어기제와 자아분화수준.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백경하(2003). 원가족에서의 자아분화가 지도력 및 대인관계 적절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송화숙(1997). 상호의존과 자아분화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심홍섭(1998). 상담자 발달수준 척도 개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교숙(2001). 놀이치료자의 경력·훈련경험 및 자의식과 역전이 관리 능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정설(2002). 상담자의 성격특성 및 경력이 역전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세미(1999). 상담자 특성, 역전이 관리능력 및 상태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인호(2004).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행동 및 상담협력관계가 상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명식(2003). 역전이와 상담자의 자기 문제. **동서정신과학 6(2),** 197-214.

최윤미. 양난미, 이지연(2002). 상담자 소진 내용의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581-598.

Alexander, F. A. & French, T.(1946). *Psychoanalytic therapy Principles and applications.* New York: Ronald Press.

Boszormenyi-Nagy, Ivan and Krasner, Barbara R. 1986). *Between Give and Take: A Clinical Guide to Contextual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Publishers.

Bowen, M. D.(1976). Therapy in the practice of psychology. in *Family Therapy,* (Ed.) Guerin, P. New York. Gardner Press.

Bowen, M. D.(1981). The Use of family theory in clinical practice in *Family Therapy: Major contributions* Ed. by Rovert Jay Green and James L. Framo. Madison and Connecticut: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Bowen, M. D.(1985). On the differentiation of self.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orthvale, New Jersey, London: Jason Aronson.

Bowen, M. D.(1990).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orthvale and London: Jason Aronson.

Cormier, S. L.(1988). Critical Incidents in Counselor Development: Themes and Pattern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October, *67*, 132-132.

Erikson, Erik(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and London: W.W. Norton & Company.

Friedman, S. & Gelso C. J.(2000). The Development of the inventory of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 1221-1235.

Gelso, C. J., Fassinger, R. E., Gomez, M. J., & Latt, M. G.(1995). Contertransference reactions to lesbian clients: The role of homophobia, counselor gender, and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356-364.

Gelso, C. J. & Carter, J. A.(1994). Components of the psychotherapy relationship: Their interaction and unfolding during trea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296-306.

Gelso, C. J. & Hayes, J. A.(1998). *The psychotherapy relationship: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Wiley

Hayes, J. A., Riker, J. B. & Ingram, K. M.(1997).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and management in brief counseling: A field study. *Psychotherapy Research, 7*, 145-154.

Heimann, P.(1950). On Countertransfe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1, 81-84.

Kernberg, O.(1965). Notes on countertransference. *Journal of American Psychoanalysis Association,* 13, 38-56.

Kerr, M. E. & Bowen, M.(1988). *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New York and London: W.W. Norton & Company.

Kerr, M. E.(1981). Family Systems Theory and Therapy in *Handbook of Family Therapy.* vol. I , Ed. by Alan S Gurman and David P. Kniskern. New York: Brunner/Mazel, Publishers.

Langs, R.(1974). *The technique of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vol.2). New York: Jason Aronson.

Little, M.(1951). Countertransference and the patient's response to it. *Journal of Psychoanalysis,* 32, 32-40.

Loganbill, C., Hardy, E, & Delworth, U.(1982). Supervision: A Conceptual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 3-42.

Papero, Daniel V.(1990). *Bowen Family Systems Theory*. Boston and London: Allyn and Bacon.

Peabody, S. A., & Gelso, C. J.(1982). Contertransference and empathy: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two divergent concept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240-245.

Scharff, D. E. & Scharff, J. S.(1991). *Object Relations Family Therapy*. Northvale: Jason Aronson.

Skovholt, T. M., & McCarthy, P. R. (1988). Critical Incidents: Catalysts for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7,* 69-72.

Skovholt, T. M. & Ronnestad, M. Ⅱ (1992). *The Evolving Professional self. Stages and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hn Wiley & Sons.

Skovholt, T. M. (2001). *The Resilient practitioner*. New York: Allyn & Bacon.

Stoltenberg, C. D. (1981). Approaching Supervision from a Counseling and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February, 66, 258-60.

Stoltenberg, C. D. & Delwoth, U. (1987). *Supervising Counselors and Therapists: A Developmental Approach,* Jossey Bass Publishers.

Sussman, M. B. (Ed.). (1995). *A perilous calling: the hazards of psychotherapy practice.* New York: John Wiley & Sons.

Titleman P. (1995) *The Therapist's own family toward the differentiation of self.* Northvale, New Jersey, London: Jason Aronson.

Vandelkooki, I. K. & Handelsman, M. M. (1984). Toward an integration of Jungian and Bowen Perspectives on psychotherapy. *Family therapy,* 6.

Van Wagoner, S. L., Gelso, C. J., Hayes, J. A., & Diemer, R. A.(1991). Countertransference and the reputedly excellent therapist. *Psychotherapy,* 28, 411-421.

Waanders, D. D. (1987). Ethical reflection on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 marriage. *Journal of Pastoral Care,* 41.

Winnicott, D. W.(1960). *The Maturational Processes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London: Hogarth, 1965.

감사의 글

역전이라는 주제를 하나의 화두 삼아 논문을 준비하면서, 상담자는 지식습득, 훈련 이전에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용기 있게 자신을 드러내고 실존의 고통과 행복을 함께 나누었던 내담자들과, 삶을 살아가는 태도 그 자체로 몸소 모범을 보여주신 여러 스승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기에 먼저 그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상담자로의 길을 처음 열어주신 김영재 선생님, 대학원 생활에서 길잡이가 돼 주셨던 윤호균 선생님, 정남운 선생님, 조성호 선생님, 이희경 선생님, 김정욱 선생님,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서 가르침을 주시고 배려해주신 강이영 선생님, 박남숙 선생님, 정선영 선생님, 조은정 선생님, 고향자 선생님, 김수형 선생님, 김해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도교수이신 정남운 선생님의 세심한 배려를 통해, 이제껏 마음의 짐이 되었던 권위자에 대한 편견을 벗어버릴 수 있었기에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기꺼이 설문에 응해주셨던 선후배, 동료 상담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생활의 고단함과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고, 논문과정을 내 일처럼 도와주었던 동기들, 마리, 현정, 완수, 정윤, 은옥, 혜선, 수연, 혜영, 은혜, 주은, 지선, 용옥, 영숙, 보성샘, 유마리샘, 이선이샘, 변영철샘, 김효중샘, 김경천 목사님, 기대샘, 내 자신의 모순과 부끄러움을 편하게 내놓고 다시 수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 분석동아리 정해, 정선, 계정, 희숙 그리고 논문쓰기, 상담하기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인턴, 레지던트 동료들, 명희샘, 미화샘, 세미샘, 미경샘, 미란샘, 효정샘, 빛나,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던 은정, 차인권샘의 배려 없이는 논문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없었기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상담자 길을 인도해주고 앞으로도 함께 할 소울 메이트 금형, 치열한 삶의 태도로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경미, 성실과 겸손을 가르쳐주는 혜정, 한결 같이 따뜻한 벗 영선, 사랑의 모범답안을 보여주는 현주, 프로의 당당함과 유쾌함으로 힘이 돼 주는 성은, 영아, 희진, 기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격려해 주었던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은근한 지지로 제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가족들, 특히 철없는 막내딸에게 자유와 방황과 배움을 늘 말없이 허용하시고 든든한 울타리로 뒷받침해주시는, 이제 생각해보니 지극히 인간중심적 부모님이셨던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한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 록

* 다음의 항목은 귀하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 표를 하여 주십시오. 해당란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란에 자세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1) 남 / 2) 여 **2. 연령** : 만 _____ 세

3. 출생순위 : 1) 첫째 2) 둘째 3) 셋째 4) 넷째 5) 다섯째 6) 기타_____

3. 결혼 상태
1) 미혼 : ① 부모와 동거함 ② 부모와 동거하지 않음
2) 기혼 : ① 자녀 있음 ② 자녀 없음
3) 기타 _____

4. 최종학력
1) 석사과정 2) 석사수료 및 학위
3) 박사과정 4) 박사수료 및 학위 5)기타_____

5. 현재 근무지 (주된 근무지 한곳에만 기입해 주세요)
1) 공공 상담소 (시군구 청소년 상담실 등)
2) 대학부설 상담소 (학생생활연구소 등)
3) 사설 상담소 4) 복지관 5) 기타_____

6. 경력
1) 상담경력
① 기간 : _____ 년 _____ 개월(첫 상담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② 상담한 총 사례 수 : 대략 _____ 사례 _____ 회(개인상담을 중심으로)
2) 귀하가 슈퍼비전을 받은 총 횟수 : 대략 _____ 회(개인, 집단상담 등 포함)
3) 귀하가 교육분석(또는 개인상담)을 받은 총 횟수 : 대략 _____ 회(개인, 집단상담 등 포함)

7. 주 상담대상 (주된 대상 한 곳에만 기입해 주세요)
1) 아동 2) 청소년 3) 성인

8. 주당 상담소 근무시간 _____ 시간

9. 상담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써 주십시오. _____

1. 상담자 발달수준 질문지

다음 문장을 읽고 평소 상담 중에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곳에 “V”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일치하지 않는다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	다소 일치한다	상당히 일치한다
1. 내담자의 말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한다.	1	2	3	4
2. 내담자 행동변화를 위하여 특정한 계획을 세운다.	1	2	3	4
3. 내담자에게 평가적이거나 판단적이지 않은 태도를 유지한다.	1	2	3	4
4. 내담자의 대인관계 양상을 이해한다.	1	2	3	4
5. 내담자의 감정을 잘 포착한다.	1	2	3	4
6. 내담자가 표현하는 말의 의도를 안다.	1	2	3	4
7. 내담자의 핵심문제를 잘 파악한다.	1	2	3	4
8. 내담자와 상담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	1	2	3	4
9. 내담자의 내적 상황을 잘 감지한다.	1	2	3	4
10.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	1	2	3	4
11. 내담자를 자신 있게 대한다.	1	2	3	4
12. 내담자 말에서 중요한 주제를 잘 따라간다.	1	2	3	4
13. 내담자 변화를 잘 알아차린다.	1	2	3	4
14. 내담자가 상담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	1	2	3	4
15. 내담자 증상을 잘 파악한다.	1	2	3	4
16. 적절한 시기에 개입한다.	1	2	3	4
17. 내담자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1	2	3	4
18. 내담자에게서 나온 자료를 종합하여 내담자를 이해한다.	1	2	3	4
19.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안다.	1	2	3	4
20. 상담자 말의 의도가 분명하게 표현된다.	1	2	3	4
21. 내담자에게 진실하고 솔직하다.	1	2	3	4
22. 내담자가 자기를 탐색할 수 있게 대화를 이끈다.	1	2	3	4
23. 내담자 증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는지를 안다.	1	2	3	4
24. 상담을 짜임새 있게 이끈다.	1	2	3	4
25. 대화의 맥락이 자연스럽다.	1	2	3	4

	상당히 일치하지 않는다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	다소 일치한다	상당히 일치한다
26. 바람직한 내담자의 행동을 강화해준다.	1	2	3	4
27. 내담자를 보는 시각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	1	2	3	4
28. 내담자가 얘기하는 것의 이면이 드러날 수 있도록 묻는다.	1	2	3	4
29. 공감표현을 잘한다.	1	2	3	4
30. 상담목표와 일치하는 기법과 그렇지 않은 기법을 분별해서 사용한다.	1	2	3	4
31. 내담자 문제를 다루는데 우선순위를 정하여 접근한다.	1	2	3	4
32. 상담목적을 분명히 잡고 상담을 이끌고 간다.	1	2	3	4
33. 지금-여기서의 내담자 감정에 대한 언급을 잘한다.	1	2	3	4
34. 내담자와 상담목표를 합의한다.	1	2	3	4
35. 내담자 대화에서 드러난 것의 이면을 본다.	1	2	3	4
36.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 좋아한다.	1	2	3	4
37. 내담자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1	2	3	4
38. 내담자의 사회적 지지체제를 본다.	1	2	3	4
39. 내담자 문제에 가려진 내담자의 성장 가능성을 본다.	1	2	3	4
40. 문제해결의 대안이 적절하거나 다양하다.	1	2	3	4
41. 내담자에 대한 평가(assessment)가 폭 넓다.	1	2	3	4
42. 내담자 말의 모호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묻는다.	1	2	3	4
43. 상담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잘 본다.	1	2	3	4
44. 내담자의 진술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요약한다.	1	2	3	4
45. 중요한 치료기법들을 제대로 사용한다.	1	2	3	4
46. 내담자 변화를 내담자가 인지하게 한다.	1	2	3	4
47.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주는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1	2	3	4
48. 내담자 순간순간의 마음을 잘 잡는다.	1	2	3	4
49. 내담자가 현 시점에서 상담하게 된 동기를 안다.	1	2	3	4
50. 내담자의 장점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본다.	1	2	3	4

2. 역전이 행동 질문지

다음은 **최근 1년간**의 상담에서의 전반적 경험을 묻는 문항입니다. **내담자를 청소년 이상**으로 제한하고자 하오니 상담 대상이 아동인 상담자께서는 부모 상담에서의 경험을 떠올리시며 응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상담 중에 내담자와 공모한 적이 있다.	1	2	3	4	5
2. 나는 상담 중에 내담자를 배척한 적이 있다.	1	2	3	4	5
3. 나는 상담 중에 지나치게 지지적이다.	1	2	3	4	5
4. 나는 상담 중에 내담자 편이 된다.	1	2	3	4	5
5. 나는 상담 중에 내담자에게 무관심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나는 상담 중에 내담자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 적이 있다.	1	2	3	4	5
7. 나는 상담 중에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한다.	1	2	3	4	5
8. 나는 상담 중에 화제를 자주 바꾼다.	1	2	3	4	5
9. 나는 상담 중에 내담자에게 비판적으로 대한 적이 있다.	1	2	3	4	5
10. 나는 상담 중에 불평을 하면서 상담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다.	1	2	3	4	5
11. 나는 상담 중에 내담자를 벌하듯이 대한 적이 있다.	1	2	3	4	5
12. 나는 상담 중에 내담자에게 부적절하게 사과한 적이 있다.	1	2	3	4	5
13. 나는 상담 중에 내담자에게 순종하듯이 행동한다.	1	2	3	4	5
14. 나는 상담 중에 의존적으로 행동한다.	1	2	3	4	5
15. 나는 상담 중에 너무 자주 내담자에게 동조한다.	1	2	3	4	5
16. 나는 상담 중에 부적절하게 충고하는 듯한 어조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1	2	3	4	5
17. 나는 상담 중에 내담자에게 거리를 둔 적이 있다.	1	2	3	4	5
18. 나는 상담 중에 나 자신에 대한 개방을 너무 많이 한다.	1	2	3	4	5
19. 나는 상담 중에 내담자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 적이 있다	1	2	3	4	5
20. 나는 상담 중에 내담자의 동기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질문한 적이 있다.	1	2	3	4	5
21. 나는 상담 중에 지나치게 구조화하려고 한 적이 있다.	1	2	3	4	5

3. 자아분화 수준 질문지

다음 1~13 번까지의 문항은 귀하의 **최근 2년 간**의 전반적인 행동, 경험 및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하는 일이 많다.	1	2	3	4
2. 나는 말부터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 말을 후회하는 일이 많다	1	2	3	4
3. 나는 비교적 내 감정을 잘 통제해 나가는 편이다.	1	2	3	4
4.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편이다.	1	2	3	4
5. 나는 욕을 하고 무엇이든 부수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낀다.	1	2	3	4
6.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에 잘 말려드는 편이다.	1	2	3	4
7.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편이다.	1	2	3	4
8. 나는 남이 지적할 때보다 내가 틀렸다고 여길 때 의견을 더 잘 바꾼다.	1	2	3	4
9. 나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의견을 더 중시한다.	1	2	3	4
10. 논쟁이 일더라도 필요할 때에는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1	2	3	4
11. 내 말이나 의견이 남의 비판을 받으면 얼른 바꾼다.	1	2	3	4
12. 내 계획이 주위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잘 바꾼다.	1	2	3	4
13. 주위의 말을 참작은 해도 어디까지나 내 소신에 따라 결정한다.	1	2	3	4

다음 14~36번 까지는 현재 뿐 아니라, **아동기, 청소년기 및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행동, 경험 및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랬다	매우 그랬다
14. 자라면서 부모님이 내게 대해 근심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1	2	3	4
15. 부모님은 내가 미덥지 못해서 지나치게 당부하는 일이 많았다.	1	2	3	4
16. 우리 부모는 형제들 중 유독 나 때문에 속을 많이 썩었다.	1	2	3	4
17. 부모님은 내게만 문제가 없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을 많이 했다.	1	2	3	4
18. 내가 처한 상황은 부모님이 내게 입버릇처럼 말해 오던 대로이다.	1	2	3	4
19. 내 걱정이나 근심은 옛날 부모님이 내게 말씀하시던 그대로이다.	1	2	3	4
20.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면 대단히 불편하리라 생각했다.	1	2	3	4
21. 가정을 떠나는 것이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	1	2	3	4
22. 나는 부모님 슬하에서 하루 빨리 독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았다.	1	2	3	4
23. 부모님과 자주 다투기 보다는 안 보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했다.	1	2	3	4
24. 나는 자라면서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껴 왔다.	1	2	3	4
25.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과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1	2	3	4
26. 내가 자랄 때 우리 가족은 각자 자기의 본분을 다했다.	1	2	3	4
27. 우리 가족은 심각한 일이 있어도 가족간에 금은 잘 가지 않았다.	1	2	3	4
28. 가족 간에 말썽이 있어도 서로 상의해가며 잘 해결해 왔다.	1	2	3	4
29. 우리 가정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다짐을 하는 일이 드물었다. (드물었으면 3번이나 4번에 표시)	1	2	3	4
30.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모님은 차분하게 잘 처리하셨다.	1	2	3	4
31. 우리 가정은 대체적으로 화목하고 단란했던 편이다.	1	2	3	4
32. 우리 가족은 각자 의견이 달라도 서로 존중해 준 편이다.	1	2	3	4
33. 나는 어릴 때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1	2	3	4
34. 우리 가족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도 잘 싸웠다.	1	2	3	4
35. 부모님은 나를 낳았을 뿐, 교육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1	2	3	4
36. 우리 가족들은 서로에게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1	2	3	4

Relationships among Counselor Development Level, Self-Differentiation and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A THESIS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COUNSELING PSYCHOLOGY

by

Kyung-Yeon Yang

SEOUL, KOREA

August, 2005

The undersigned certify that they have read this thesis and that in their opinion it is satisfactory in scope and quality as a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Counseling Psychology.

THESIS COMMITTEE

Chairman _____

Lee-Hee Kyung

Member _____

Sung-Ho Cho

Member _____

Nam-Woon Chung

August, 2005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Relationships among Counselor Development Level, Self-Differentiation and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by

Kyung-Yeon Yang

Master's Program in Counseling Psychology

Department of Counseling of the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counselor development level, self-differentiation and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counselor's person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counselor development level, and the self-differentiation on the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The data of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120 counselors in Seoul, Kyunggi-Do. Tree instruments, the Korean Counselor Level Questionnaire, the Inventory of Self-differentiation and the Inventory of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were used for the survey. The data were analyzed by employing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Firstly,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ans of the counselor development level score by the counselor's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age, marriage status and the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level of counseling certificate. In case of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score,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y the living status with their parents and counseling certificate. Also, years and cases of personal counseling experiences were correlate with the counselor development level and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and cases of personal counseling experiences were correlate with self-differentiation level.

Secondly, the counselor development level positively correlates with the self-differentiation and the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negatively correlates with both the counselor development level and the self-differentiation. In addition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among the factors of the self-differentiation, the integration ability of self and the control ability of emotion by intellectual function would explain for the positive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17% and the emotional cut off and the control ability of emotion by intellectual function would explain for the negative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18%.

The results provided the emphasis on the counselor's personal characteristics on the basis of the fundamental dynamics of counselor's own family and the necessity of various counselor's experiences to control the countertransference behaviors.